학생부 기재 가능 경제경영이해력시험
국가공인 매경 TEST
청소년 경제·경영 신문

틴 Teen 매일경제

teen.mk.co.kr 2019년 9월 4일 수요일

유럽·日 마이너스 금리 샤일록도 울고 가겠네

〈베니스의 상인 고리대금 업자〉



〈매경DB〉

Cover Story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 대신 보관료 내는 시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의 등장인물 샤일록은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기는 고리대금업자다. 악질적인 인물인 그는 주인공에게 돈을 꿔주며 이를 갚지 못하면 살 1파운드를 받겠다고 계약한다. 말하자면 원리금(원금+이자)을 1파운드의 살덩이로 삼은 셈이다. ▶관련기사 4·5면

하지만 르네상스 시기의 악질 고리대금업자 샤일록도 오늘날 유럽에 도착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일상화된 2019년 유럽에서라면 그는 오히려 돈을 빌려주며 자신의 살을 저당잡힐 위기에 처한다.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는커녕 은행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점차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금리란 금리가 0%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예금을 하거나 채권을 매입할 때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보관료' 개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유럽에서는 이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다. 스웨덴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2009년 7월 도입한 데 이어 덴마크, 스위스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도 2016년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에 적용돼 왔다. 주목할 점은 최근 들어 이 같은 기현상이 일반 은행 고객도 돈을 맡기면 '보관료' 명목으로 돈을 내야 하는 '마이너스 금리'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거액 자산가들이 많은 돈을 은행에 맡길 때다. 덴마크 위스케은행이 예금 잔액 750만크로네(약 13억4362만원) 이상 계좌에 연 0.6%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0억원을 예금하면 매년 1200만원씩 은행에 내야 한다.



그림_정찬동

마이너스 금리는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도록 유도해 경기를 부양하고, 인플레이션을 유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것인지 관심사다. 류영욱 기자

INSIDE



머리 확 좋아지는 약? 12



대입 완전정복 16~18



프로듀스 X1 데뷔 21

외계에서 온 '록 스타' 우주를 노래하고 다시 검은별로



데이비드 보위(가수·1947~2016)

1969년, 인간은 아폴로11호를 타고 달에 갔다. BBC방송은 아폴로11호를 중계하며 배경음악으로 신인 가수의 곡 'Space oddity'를 깔았다. 가사 속 화자는 우주비행사 톰 소령이다. 그는 우주에서 지구로 귀환 중이다. 지상관제센터에서 연락이 온다. "들립니까 톰 소령? 회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들립니까 톰 소령?" 그리고 교신이 끊긴다. 'Space oddity'는 우주미아로 전락하는 톰 소령을 다룬 노래다. 이런 음악을 아폴로11호 중계에 튼 건 방송국 실수였다. 이 곡을 부른 가수조차 "BBC 직원이 가사를 제대로 안 들었나 보군요"라고 말했다. 아무튼 아폴로11호는 무사 귀환했고 'Space oddity'를 부른 가수는 첫 번째 히트곡을 얻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스타 중 가장 다채롭게 빛났던 데이비드 보위는 그렇게 첫걸음을 뗐다.

◆화성에서 온 록스타 '지기 스타더스트'

1969년, 데이비드 보위의 등장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짙은 화장에 하이힐을 신고, 반짝거리는 드레스를 입은 남자가 무대에 올랐다. 보위는 더 나아가 자신은 양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다. 보수적인 주류사회는 보위를 공격했다. 하지만 보위의 도발적인 무대와 권위를 비웃는 듯한 행보에서 해방감을 느낀 팬들이 늘어났다. 중성적인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운 '글램록' 전성시대가 열렸다. 보위가 '글램록 아이콘'으로 등극한 건 1972년 발표한 앨범 'The rise and fall of Ziggy Stardust and the spiders from Mars' 덕분이었다. 보위는 이 앨범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데이비드 보위'라는 이름을 버렸다. 대신 화성에서 온 외계인 록스타 '지기 스타더스트'라는 캐릭터를 창조해 분신으로 삼았다. '톰 소령'에 이은 두 번째 페르소나였다.

◆글램록을 버린 글램록 아이콘

"당신이 편안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당신이 죽었다는 뜻이다"라는 말을 남긴 보위는 쉴 새 없이 변신했다. '글램록 아이콘'이었던 그가 글램록 장르에 머물렀던 시간은 5년도 안된다.



2016년 데이비드 보위가 세상을 떠난 직후 영국 런던 브릭스턴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있는 시민들. 【AP연합뉴스】

70년대 英 휩쓴 '글램 록' 창시자
중성적인 이미지 내세워 스타덤

한 장르에 머무르지 않았던 보위
디스코·재즈·일렉트로닉 등 도전
'퀸' 프레디 머큐리와 듀엣하기도

반세기 가까이 혁신적인 음악실험
20세기 대표하는 문화아이콘 등극

1970년대 후반 독일 베를린에 머물며 연달아 세 장의 앨범 'Low'(1977) 'Heroes'(1977) 'Lodger'(1979)를 발표한다. '베를린 3부작'으로 불리는 이 앨범은 실험적인 사운드와 냉전시대 비극을 꿰뚫는 가사로 호평받았다. 보위는 솔, 디스코, 재즈, 전자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끌어안으며 영역을 넓혀갔다.

경계를 긋지 않고 활동한 가수답게 보위는 여러 아티스트들과 함께했다. 존 레넌, 브라이언 이노, 믹 재거, 팻 매스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와 손잡고 혁신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냈다. 하이라이트는 프레디 머큐리와의 만남이었다.

1981년 퀸은 스위스 스튜디오에서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다. 보위가 방문한다. 그는 퀸을 위해 'Cool cat'이란 곡 피처링을 맡기로 했다. 녹음을 마친 보위는 결과물에 만족하지 못했다. 자신의 파트를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그대로 보위와 프레디가 헤어졌다면 세상은 세기의 명곡 하나를 잃었을 것이다. 둘은 이왕 만난 김에 즉흥적으로 노래 한 곡을 함께 만들기로 한다. 두 아티스트는 24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끝내 한 곡이 나왔다. 퀸 대표곡으로 꼽히는 'Under pressure'는 그렇게 탄생했다.

◆톰 소령, 검은 별로 가다

2003년 발표한 앨범 'Reality' 이후 보위는 오랫동안 새로운 음악을 만들지 않았다. 세상은 보위의 도전도 여기까지일 것이라 짐작했다. 2013년 보위는 예고 없이 새 앨범을 공개했다. 거물의 깜짝 컴백도 뉴스였지만, 더 놀라운 건 음악 자체였다. '베를린 3부작' 이후 최고란 평가가 나왔다. 3년 후 2016년 1월 8일 또 다른 정규 앨범이 나왔다. 70세를 앞둔 노인이 낸 앨범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실험적인 사운드로 가득했다. 거장의 완벽한 부활을 떠들썩하게 전한 언론은, 곧 쓸쓸한 소식을 알려야 했다. 보위는 이 음반을 발표하고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다. 예고 없는 이별이었다. 보위는 18개월간 암으로 투병했지만, 알리지 않았다.

'Space oddity'로 시작한 보위는 'Moonage daydream' 'Starman'처럼 우주를 품은 곡을 많이 남겼다. 마지막까지도 별을 노래했다. 유작 앨범 타이틀곡은 'Black star'다. 이 곡을 만들 때 보위는 죽음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을 것이다. 그 죽음을 마지막 작품 주제로 삼았다. 'Black star' 뮤직비디오 배경은 검은 별이다. 거기엔 백골이 된 우주인이 있다. 팬들은 이 우주인이 'Space oddity'의 톰 소령이라는 걸 단번에 알았다. 톰 소령은 끝내 지구로 귀환하지 않았고, 미지의 세계에서 눈을 감았다. 아폴로11호와 함께 쏘아 올려진 보위는 그렇게 '검은 별'에 도착했다. 조성준 기자

청소년 경제·경영 신문
틴 Teen 매일경제
매일경제·금융저축정보센터 공동 기획

회 장	장대환
발행·편집·인쇄인	손현덕
논설실장	장경덕
편집국장	김정욱

04627 서울 중구 퇴계로 190 편집국 경제경영연구소 (02)2000-2408
이메일 : teen@mk.co.kr
홈페이지 : teen.mk.co.kr

구독문의	(02)2000-2383
광고문의	(02)2000-2200

알립니다

매테·틴매테 원서접수 이달 10일까지



국가공인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매경TEST·매테)과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틴매경TEST·틴매테)을 통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십시오. 매경TEST는 대기업과 금융사, 공기업이 신입사원 채용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최우수·우수등급 취득 시 고교 학생부에도 기재 가능합니다. 문의는 (02)2000-2408

◇**시험일**=9월 21일(토)
◇**접수**=홈페이지(mktest.org)에서 9월 10일(화) 자정까지 정기접수. 11일(수)부터 15일(일)까지 추가접수.
◇**응시료**=매테 성인 3만원·청소년 2만원, 틴매테 2만원(추가접수는 3000원 가산)
◇**만점(문항)**=매테 1000점(경제·경영 각각 40문항), 틴매테 100점(경제·금융 각각 25문항)

주최 : **매일경제신문사**

후원 : 신한은행 우정사업본부 KYOBO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MERITZ 메리츠화재

당신에게 '케렌시아'는 어디인가

〈Querencia·힐링아지트〉



미황사

내 인생을 바꾼 여행지 / 혜민스님

'여러분은 혹시 자신만의 안식처가 있나요? 삶이 지치고 힘들 때, 그래서 본연의 자기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혼자 조용히 찾아가 숨을 고르며 치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 말입니다. 스페인어로는 이렇게 다시 기운을 되찾는 곳을 케렌시아(Querencia)라고 합니다.'
-혜민스님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에서'

내 영혼까지 맑아지는 포인트
그런 곳은 그리 멀지 않았다

20년전 행자승 생활 시작했던
뉴욕의 '불광선원'이 첫 번째
마음 요동칠때 습관처럼 찾는
해남 미황사에서도 평화 얻어

머리 복잡할땐 삼청공원에서
물소리 졸졸·나무 향기 듬뿍
행복이 스르르 스며드는 하루

뜬금없이 든 생각. 나에겐 과연 '케렌시아' 포인트가 있을까. 곰곰 생각해 보니, 있다. 하지만 지면을 통해 공개, 절대 안 해드린다. 왜냐? 나만 알고 있어야 하니까. 소문나면 붐비니까.

케렌시아. 스페인에서 온 이 말의 원래 뜻은 조금 살벌하다. 피 튀기는 스페인의 투우 경기에서 투우사와 목숨을 걸고 싸우다 지친 소가 숨을 고르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 그 포인트, 즉 잠깐 쉬며 '기력을 회복하는 장소'라는 의미다. 살짝 틀어 삶에 케렌시아를 투영해 본다면 의미는 더 와 닿는다.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전쟁터인 초고속의 삶. 냉혹한 이 삶의 정글에서 유일하게 조용히 찾아가 치유할 수 있는 피란처 정도가 된다.

혜민스님은 조곤조곤 말한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불안하고 힘든 삶 속에서 버티려면 자기 주변의 '케렌시아'를 여러 곳 찾아내라고. 사실 혜민스님의 인생을 바꾼 여행 포인트도, 알고보면 멀리 있지 않았다. '어' 하며 코앞에 수없이 떨어져 있는 게 행복인 것처럼, 인생을 바꾼 여행지,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게다. 혜민스님은 한 칼럼(나만의 소확행)에서 행복을 이렇게 정의한다.

"행복은 집이나 자동차같이 비싸고 갖기 어려운 대상들을 소유하고 나서 느끼는 감정이 결코 아니다. 지금 현재 시간을 내가 어떻게 온전히 쓰는가, 자연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스스로에게 부여했는가가 관건이 된다"고.



뉴욕에 있을 때, 그의 케렌시아는 그의 멘토 스님이 기거했던 '불광선원'이었다. 20년 전 행자승 생활을 시작한 곳도 여기니, 그에겐 제법 큰 덩치의 케렌시아인 셈이다. 뉴욕의 마지막 자락 태팬(Tappan)에 둥지를 트고 있는 불광선원. 뉴욕에 사찰이 있는 것도 특이한데, 미국 독립전쟁 사령부 용지로 사용된 역사적인 곳이다. 사찰도 혜민스님을 쏙 빼닮아 소박하다.

마음치유학교를 꾸려가는 한국에는 '케렌시아'가 여러 곳이다. 그는 말한다. "행복은 빈도다. 어떤 것이든 케렌시아가 될 수 있다. 굳이 장소가 아니어도 된다. 여러 개의 케렌시아를 만들수록 행복감은 높아진다. (나에겐) 차를 마시며 좋아하는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을 듣는 시간도 케렌시아가 될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새로운 음악을 만날 땐, 우연히 길에서 보물을 주운 느낌이다."

혜민스님은 강조한다. 케렌시아의 존재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대충 어떤 카페가 좋다' 정도로는 안된다. '그 카페의 어떤 구석, 어떤 자리가 좋다'는 식으로 명확해야 한다는 거다.

마음의 요동이 클 때, 그가 습관처럼 찾는 곳은 해남 땅끝마을 미황사다. 개인적으론 필자 역시 힐링여행지 1순위로 꼽는 곳이 땅끝 미황사다. 이유가 있다. 새벽 안개가 걷히면 드러나는 흰빛의 수직 암봉 풍광 때문만이 아니다. 그 힘들다는 '삼천배', 이곳에선 딱 3초 만에 이룰 수 있다. 어떻게. 미황사 대웅전엔 천불 벽화가 있다. 1000개의 불상. 그러니 딱 절 세 번만 하면 삼천배다. 혜민스님이 이곳을 찾는 이유, 당연히 초고속 삼천배 때문이 아닐 터.

그에겐 '작은' 케렌시아도 여럿이다. 뜬금없이 머리가 복잡할 때 찾는 곳은 삼청공원이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더불어 나만의 케렌시아, 쉼의 공간인 삼청공원을 걷고 있을 때도 참 행복하다. 삼청공원 안에는 나무 다섯 그루 아래 물소리를 들으며 쉴 수 있는 예쁜 벤치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잠시 앉아 새소리를 들으며 햇빛에 반짝이는 나뭇잎을 보고 있으면 마음은 지극한 평화에 가 닿는다"고.

"새소리, 너무 좋고, 햇살 비치고, 단풍지고, 새소리 나는, 이런 자연이 너무 좋다. (내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자연들이 나를 위해 꽃을 피워주고, 단풍을 만들어준 것 같고, 지저귀고, 그늘을 만들어 주고, 소리까지 내 준다. 사랑을 받는 나, 여기서 행복감과 평온함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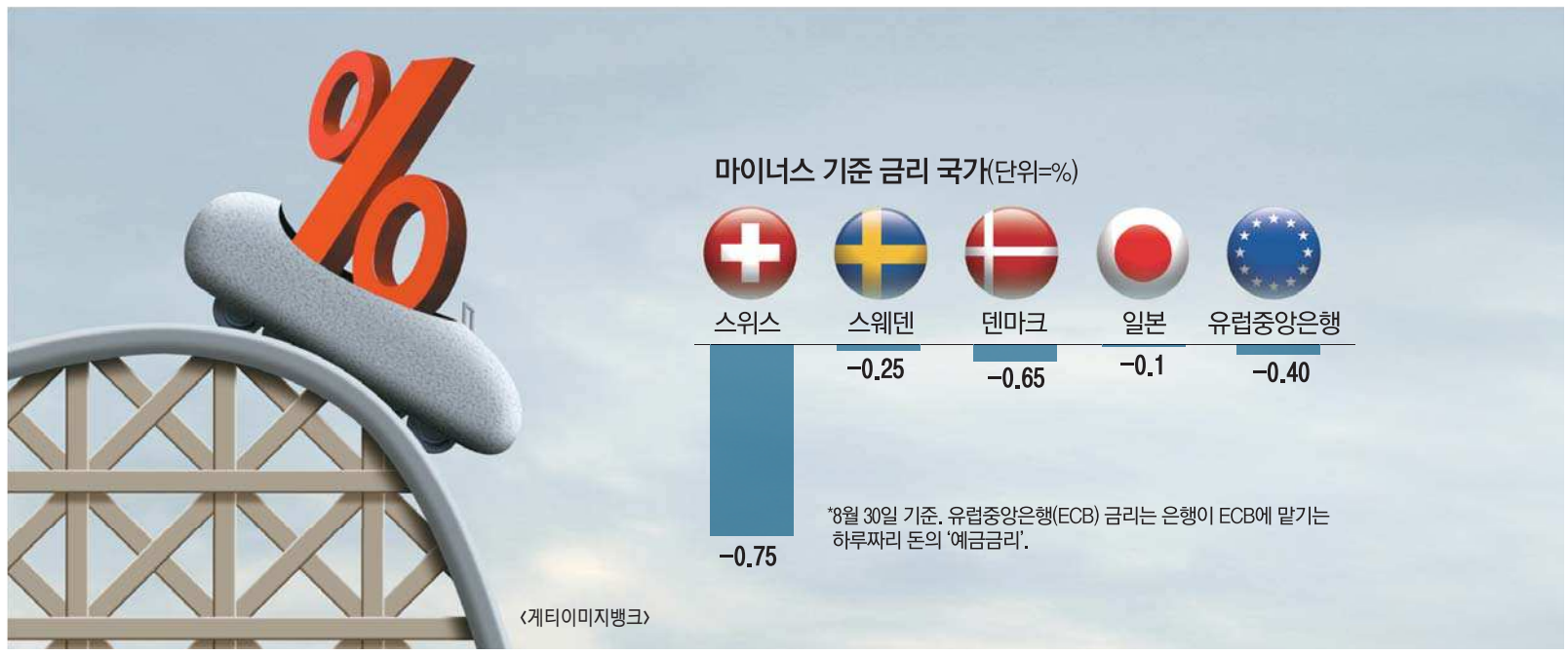
당신만의 케렌시아 찾기. 행복사냥의 단초로 케렌시아 찾기를 강조할 때 그는 자주 괴테의 말을 언급한다. '신선한 공기와 빛나는 태양, 친구들의 사랑만 있다면 삶을 낙담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다.

신익수 여행·레저전문기자

Cover Story

각국 중앙銀 마이너스 금리 왜?

공짜금리에도 시중에 돈 안돌자 극약처방



〈게티이미지뱅크〉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 이하로 낮추는 '마이너스 금리'는 글로벌 경기침체를 부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등장했다. 2009년 7월 스웨덴 중앙은행이 세계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으며, 이후 금리를 소폭 올렸다가 2015년 2월 -0.1%로 낮춘 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덴마크 스위스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시행됐으며 유로화 화폐를 다루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격인 '예금금리'는 현재 -0.4%다. 2016년 1월에는 비유럽 국가 중 최초로 일본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낮췄다.

-'금리'와 '중앙은행'의 관계는.

▶마이너스 금리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와 중앙은행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금리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다. 고객은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고객이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은행이 고객의 돈을 빌리는 것이다. 돈을 빌렸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이자(율)라고 부르는 이 대가가 바로 금리다. '대출금리' 연 3%는 은행에 100만원을 빌린다면 1년 동안 3만원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고객들이 은행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처럼 은행도 돈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맡기거나 빌려온다. 은행들이 주로 돈을 거래하는 곳이 한 나라의 화폐를 만들어 유통하는 '중앙은행'이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영국의 영란은행 등이 바로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이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대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준금리'다. 기준금리가 높다는 것은 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빌릴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크다는 뜻이다. 반대로 기준금리를 낮추면 은행은 중앙은행에 돈을 빌려도 치러야 할 값이 적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은행들은 보다 많은 양의 돈을 빌린다. 화폐를 제조하는 중앙은행은 이 기준금리 조절을 통해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을 늘렸다 줄이며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통화정책'을 펼치는 기관이다. 기준금리가 0%라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가도 지불해야 할 대가가 없다는 의미다. 중앙은행은 대가를 받지 않고서라도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야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제는 돈이 순환되면서 성장하는데, 돈이 부족하면 '돈의 순환'도 막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며 은행에 보내는 메시지는 "우리가 값(금리)을 낮춰줄 테니 너희도 고객에게 싼값으로 돈을 빌려줘라"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
기업투자 크게 줄고 물가 하락
선진국 3분의 1 디플레로 고통

2009년 스웨덴중앙銀 도입후
ECB 거쳐 일본은행까지 시행

-'마이너스 금리'는 왜 생기나.

▶문제는 이 '공짜 금리'마저 소용이 없을 때다. 마이너스 금리는 이때 등장한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부도를 걱정하는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빚을 갚기 시작했다. 돈이 필요했던 기업이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다고 태도를 바꾼다. 시중에는 더 이상 돈이 돌지 않고, 이로 인해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 경제학 입문서 '맨큐의 경제학'에는 "인플레이션은 나쁘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은 그보다 더 나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에는 선진국 경제의 3분의 1이 디플레이션을 경험했다. 이는 1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돈을 풀어야 하는 중앙은행은 금리를 결국 마이너스 영역으로 끌고 들어갔다. 즉 "이제부터는 내게 돈을 빌리면 그 값을 쳐줄 테니 고객에게 돈이 많이 빌려줘. 대신 너희가 돈을 맡긴다면 우리가 그 대가를 받아야겠어"라는 메시지를 내보인 셈이다. 돈을 맡기면 웃돈을 얹어줘야 하는 현상은 이렇게 시작됐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할 때 "세계 금융시장 리스크로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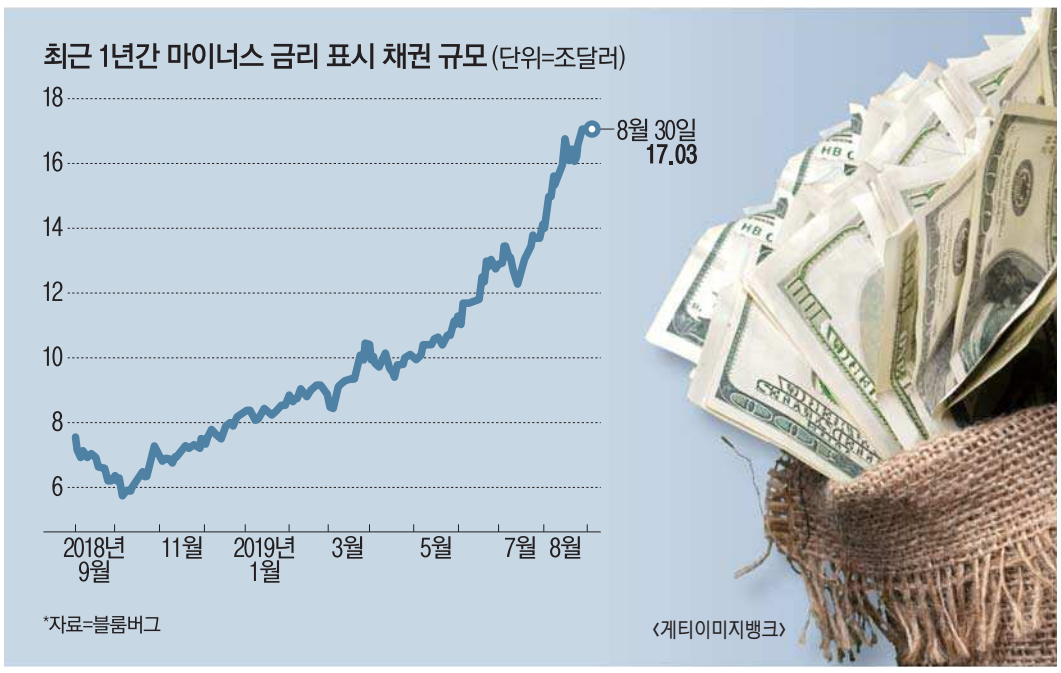
마이너스 금리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중앙은행과 은행들 모두 은행과 일반 고객 사이에는 이 같은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마이너스 금리하에서 돈을 맡기면 손해를 보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모두 은행에서 돈을 빼가는 '뱅크런'은 그 나라 경제가 망했다는 상징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이어지면서 마이너스 기준금리 환경이 지속되자 은행은 결국 이 약속을 깼다. 현재까지는 뭉칫돈을 맡기는 부자들이 마이너스 금리의 대상이다. 덴마크 위스케은행은 예금 잔액 750만크로네(약 13억4362만원) 이상 계좌에 연 0.6%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20억원을 예금하면 매년 1200만원씩 은행에 내야 한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도 오는 11월부터 200만스위스프랑(약 24억5780만원) 이상 개인 계좌에 연 0.75% 수수료를 부과한다. UBS는 이미 2012년부터 금융기관 계좌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Cover Story

일반인 예금에도 적용 확대

부자들 뭉칫돈 맡기면 오히려 수수료 내야



덴마크 위스케銀 年 0.6% 적용
20억원 맡기면 1200만원 줘야
UBS도 11월부터 0.75% 부과

안전자산 국채 쏠림현상 심화로
세계채권 30%가 마이너스 금리

크레디트스위스 역시 다음달부터 100만유로(약 13억3558만원) 이상 개인 계좌에 연 0.4%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도 마이너스 금리는 하나둘 적용되고 있다. 은행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기는커녕 돈을 받는 사례가 나타났다. 위스케은행은 10년 동안 갚아나가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0.5%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10억원을 빌리면 5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핀란드계 노르데아은행은 덴마크에서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제로(0%) 금리, 30년 만기 상품은 마이너스 금리로 낮출 예정이다.

-채권 금리도 마이너스 금리라는데.

▶세계 경기침체는 채권금리도 마이너스 영역으로 끌고 내려갔다. 채권은 돈을 빌려주면 후에 갚겠다는 일종의 빚문서로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 기업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등이 있다. 2년 만기 채권의 금리가 3%이면, 채권 100만원어치를 사면 향후 100만원과 이자 3만원을 주겠다는 뜻이다.

채권금리는 인기와 반대로 움직인다. 채권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의 인기가 올랐다는 뜻이다. 채권을 구입할 때(돈을 빌려줄 때) 얻게 되는 이득(금리)이 적더라도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충분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채무자(국가)가 도산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없는 선진국 국채는 인기가 좋아 금리가 대체로 낮다.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독일 국채, 미국 국채가 대표적이다.

떼일 위험이 높은 국채는 반대로 금리가 천정부지다. 2011년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던 그리스의 2년 만기 국채는 금리가 50%대까지 치솟았다.

올해 들어 격화된 미·중 무역전쟁 우려로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진 가운데 채권시장은 마이너스 금리가 득세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블룸버그는 전 세계 채권액(56조4610억달러)의 30%에 육박하는 16조7790억달러(약 2경370조원) 어치 채권이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1년 전에 비해 2배나 늘어난 수준이다. 마이너스 금리로 은행에 맡겨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 유럽 선진국들 국채는 마이너스 금리가 일상적이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0.2~-0.7%에 자리 잡고 있다. 튼튼한 기업들의 회사채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2월 프랑스 명품 제조기업 LVMH가 -0.017%로 회사채 3억유로를 발행한 것에 몰린 투자금은 26억유로나 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글로벌 경제 성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걱정에 돈을 꿔 투자를 하려는 이들은 적어지고, 안전한 자산에만 돈이 몰려 '돈을 빌려주는 대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초 2.7%대였던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최근 1.4%까지 떨어졌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류영욱 기자

선진국 국채금리 추락에
관련 파생상품 투자자 '헉'
최악땐 원금 모두 날릴판

예상보다 마이너스 금리 하락폭이 커지면서 큰 손실을 입는 사례이 생기고 있다.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F·DLS)'의 대규모 손실 파동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파생결합상품은 주식 채권 등 일반적 금융상품 외에 금 원유 주가를 비롯한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주요 해외 금리에 연계된 상품이다. 금리 변동에 연동돼 투자 수익률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을 파생결합증권(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 이 상품을 펀드에 담은 것을 파생결합펀드(DLF·Derivative Linked Fund)라고 한다. 주로 DLS는 증권사에서, DLF는 은행에서 판매한다. 이들 상품은 금리가 만기까지 일정 구간에 있으면 연 3.5~4%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일정 구간 아래로 내려가면 최악의 경우 원금을 모두 잃는 구조로 돼 있다.

DLF·DLS 상품은 크게 두 종류다. 첫째는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F다. 이 상품은 금리가 -0.25%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연 4% 수익을 얻는다. 하지만 그 미만으로 떨어지면 금리 차이의 최대 250배까지 손실을 입는다. 금리가 -0.65%로 떨어지면 원금 전액을 잃는 셈이다. 현재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원금 전액을 잃는 구간을 오르내리고 있다.

둘째는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 스왑(CMS) 7년물 또는 미국 달러화 이자율 스왑(CMS) 5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 이 상품 중 하나는 두 기초자산이 기준 가격(75%·85%·95%) 이상이면 조기 상환돼 연 3.5% 수익을 얻는다. 혹은 만기 때 기초자산이 기준 가격의 55% 이상이면 연 3.5%를 얻는다. 다만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0%로 하락하면 원금 전액 손실을 보는 구조다.

금융감독원은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은행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 그에 따른 불완전판매는 없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DLF·DLS의 판매 잔액은 8224억원이다.

최승진 기자

굶주림에 호박 한통 서리… 이 아이를 어찌할꼬



전현선 교사의 고전문학 감상

빵 훔쳐 '19년 옥살이' 장발장
'법은 늘 정의롭나' 질문 던져

실학자 정약용도 비슷한 고민
호박 훔친 여종 꾸짖는 아내 보며
'남과탄'이라는 한시 남겨

AI 판사라면 어떻게 판단할까

모든 사회는 '법과 규칙'이 필요하다. 구성원이 많고 다양한 사회는 물론이고, 구성원이 소수인 작은 사회도 마찬가지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란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규칙이 꼭 필요하다.

법과 규칙의 목적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법이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간혹 생긴다. 가장 흔한 예로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의 형량을 받는다. 장발장이 19년 동안 감옥에서 살게 된 것에 대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법에 따른 처분이겠지만, 이 법은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이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어떤 법은 그 시대 상황과 한 개인의 사정에 비춰봤을 때, 정의롭다고 판단할 수 없기도 하다.

과연 우리 선조들의 법과 규칙은 어땠을까. 지금보다 사회가 덜 복잡했기 때문에 법도 훨씬 단순했을까. 그렇지 않다. 옛날에도 법률은 복잡하고 다양했다. 그리고 일률적인 법은, 다양한 개인의 사정과 이야기를 고려하기 힘들기 때문에 장발장과 같은 법의 피해자도 존재했다. 우리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한시(漢詩)를 통해, 조선의 장발장을 만나 볼 수 있다.

정약용은 조선 후기 실학자로, 당대 사회를 비판하는 시를 많이 썼다. 일상의 소재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회 모순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작품을 많이 남겼다. 그런데 '남과탄(南瓜歎)'이라는 한시에서는 현실에 대한 비판보다는, 자신에 대한 자책과 자조가 이어진다. 사회에 대한 날 선 비판보다는, 자신의 무능력을 책망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궂은비 열흘 만에 여기저기 길 끊기고/
성안에도 시골에도 밥 짓는 연기 사라져
태학에서 글 읽다가 집으로 내 돌아와/
문안에 들어서자 시끌시끌 야단법석
들어 보니 며칠 전에 끼닛거리 떨어져서/
호박으로 죽을 쑤어 허기진 배 채웠는데
어린 호박 다 땄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늦게 핀 꽃 지지 않아 열매 아직 안 맺었네
항아리만큼 커다란 옆집 밭의 호박 보고/
계집종이 남몰래 그걸 훔쳐 가져와서
충성을 바쳤으니 도리어 맞는 야단/
누가 네게 훔치랬냐 회초리 꾸중 호되네



다산 정약용

상황에 대한 묘사로 작품은 시작된다. 궂은비가 열흘 동안 내리니, 여기저기 길이 끊긴 모양이다. 지금처럼 시멘트로 매끄럽게 포장되었을 리 없는 조선의 흙길은, 비가 오면 쉽게 진흙탕이 되는 모양이다. 안 그래도 어지러운 상황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화자는 집안 문젯거리에 직면하게 된다. 사정을 자세히 들어보니 참으로 딱하다. 우리 집 살림을 봐주는 계집종이 주인 부부의 배고픔을 염려하여 옆집 밭의 호박을 훔쳐왔다. 돈이나 금은보화가 아닌, 호박 하나를 훔쳤다. 본능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먹고살기 위한 도둑질이다. 주인집에서는 며칠 전 어린 호박까지 다 따버려서 도둑질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모양이다. 사정이 딱하다고는 하지만 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다. 주인 어른에게 들킨 계집종은 큰 꾸중을 듣는다. 아이를 혼내는 주인의 마음도 좋을 리 없다. 하지만 '누가 너에게 훔치랬느냐'며 아이를 야단칠 수밖에 없다.

어허 죄 없는 아이 이제 그만 화를 푸소/
이 호박 나 먹을 테니 더 이상 말을 말고
밭 주인에게 떳떳이 사실대로 얘기하소/
오릉 중자 작은 청렴 내 아니 달갑다네
나도 장차 때 만나면 청운에 오르겠지만/
그게 되지 않으면 금광 찾아 나서야지
만권 서적 읽었다고 아내 어찌 배부르랴/
밭 두 뙈기만 있어도 계집종 죄 안 지었으리
-정약용 '남과탄'

집안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이 장면을 보았다.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못 본 척할 수는 없기에 우선 어린아이를 감싼다. '죄 없는 아이'라고 하며,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고 한다. 아이는 도둑질을 했고 분명히 죄를 지었다. 공부하는 선비가 그것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그 아이의 사정을 알기에 죄가 없다고 판단한다. 법의 잣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본심을 헤아리며 죄의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는 기왕 이렇게 된 거 호박을 우리가 먹어버리고, 밭 주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자고 한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다. 아이는 도둑질을 한 죄인이다. 아이에게 죄가 없으니 호박 주인에게도 떳떳하게 말하자고 큰소리 쳤지만, 화자는 괴로웠을 것이다. 게다가 그 아이를 죄인으로 만든 것은 자신의 무능력이기 때문에, 화자는 자신에 대한 책망을 길게 늘어놓는다.

사람들은 선비들에게 '오릉'에 살았던 '중자(仲子)'와 같이 가난하지만 '청렴'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청렴은 허울뿐인 것으로 보인다. 책을 만권이나 읽으며 공부했지만, 아내는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정약용은 대표적인 실학자로 고리타분한 옛 학문을 거부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약용 자신도 정작 많은 책을 읽어가며 공부했지만 집안 식구들의 굶주림은 해결하지 못한 것 같다. 결국 화자는 조그만 밭도 없는 경제적 무능력을 자책한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무능이 아니었다면 '계집종 죄 안 지었으리'라고 말하며 결국 계집종의 행동은 '죄'라고 인정한다. 최근 인공지능(AI) 판사를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AI 판사는 모든 법률을 완벽하게 알고 있으며, 누구에게나 똑같은 처벌의 양을 내리기에 적합할 것이다. 시 속 화자가 판사라면 당연히 아이의 죗값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AI 판사는 이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 처분할지 궁금하다. 과연 누구의 판단이 옳을까. 법은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법에 따라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어렵다. 법과 사람을 동시에 봐야 하기 때문이다. 법과 사람의 이야기 중 어느 한 가지만 집중해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어느 시대나 법과 규칙이 있었겠지만, 그 법을 적용하여 사람 행동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 조심스럽다. 〈양주고 국어교사〉

조선시대 서울시장, 정승行 필수코스였죠

〈한성판윤〉


황희


한음 이덕형


박문수


박세당


지석영


민영환





배한철 기자의
한국사 이야기

정 2품 중앙관직인 '한성판윤'
'도지사' 관찰사보다 직급높아

도시계획·치안·사법 업무관장
국왕과 정사논하는 주요 관직

황희·권율·이덕형·박문수…
조선 왕조 511년간 1100여명
전주 이씨가문은 43명 배출해
풍산 홍씨 '3부자 판윤' 진기록

서울시장은 전국의 단체장 중 꽃으로 불린다. 한 해 35조원의 예산을 주무르고 5만여 공무원의 임명·해면권을 쥐고 있는 수도 서울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다. 경제, 도시계획, 복지, 교육, 문화, 심지어 외교까지 서울시장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분야가 드물다. 국방력만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그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조선시대 한성의 수장이던 '한성판윤'은 어땠을까. 한성판윤은 6조판서와 동등한 정2품 경관직(중앙관직)으로, 종2품 외관직(지방관직)인 각 도의 관찰사(오늘날 도지사와 광역시장에 해당)보다 직위가 높았다. 한성부는 부(府)의 하나였지만 부윤(府尹)과 구별해 판윤(判尹)이라 호칭해 특정 지역을 관할하는 직책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 판윤은 의정부 좌·우참찬, 6조 판서와 함께 아홉 대신을 뜻하는 9경(卿)에 포함되는 중요한 자리였다. 궁궐과 중앙관서의 호위 및 도성 치안을 담당해 매일 편전에서 국왕과 정사를 논하는 상참(常參)에 참여했다. 지금의 행정부시장 격인 종2품 좌윤과 우윤이 보좌했고 대체로 판서나 참찬 등 정2품을 지낸 인물이 임명됐다. '정승이 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벼슬'로 인식되면서 이를 차지하기 위해 붕당 간 경쟁도 치열했다.

한성부 청사가 광화문 앞 육조거리 핵심 지역에 위치했던 것을 보더라도 높은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북악~경복궁 근정전~광화문~육조거리로 이어지는 도성의 중심 축에서 한성부 청사는 의정부와 이조 다음에 배치됐다.

서울 명칭은 태조 4년(1395) '한양부'가 '한성부'로 변경돼 1910년 경술국치 후 '경성부'로 바뀔 때까지 조선조 511년간 사용됐다. 한성부를 다스리는 벼슬아치의 명칭은 '판한성부사'로 시작해 '한성부윤' '한성판윤' '관찰사', 다시 '한성판윤'으로 변해왔다. 예종 원년인 1469년 한성판윤으로 바뀌어 일제에 병합될 때까지 430년간 사용되면서 한성판윤이 서울 수장의 대명사로 인식돼 왔다.

초대 한성판윤은 이성계의 오랜 벗인 성석린(1338~1423)이었다. 그는 1395년(태조 4년) 한성판윤에 임명됐다. 한성판윤은 조선 511년간 1390대에 걸쳐 1100여 명이 배출됐다. 명재상 황희(1363~1452)와 맹사성(1360~1438), 명문장가 서거정(1420~1488), 행주대첩 명장 권율(1537~1599), 한음 이덕형(1561~1613), 암행어사 박문수(1691~1756), 실학자 박세당(1629~1703), 개화사상 선구자 박규수(1807~1876), 종두법을 보급한 지석영(1855~1935),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자결한 민영환(1861~1905) 등이 대표적 인물들이다.

한성판윤을 10명 이상 배출한 가문은 전주 이씨, 여흥 민씨, 달성 서씨, 파평 윤씨 등 모두 25개 가문이다. 전주 이씨에서는 43명, 여흥 민씨에서는 35명이 나왔다. 한성판윤을 가장 많이 역임한 인물은 연안 이씨 가문의 이가우(1783~1852)로 헌종부터 철종까지 13년 동안 무려 10회나 지내 '판윤대감'이라 불렸다.

최단 기간 한성판윤은 안동 김씨 김좌근(1797~1869)으로 임명된 날(철종 즉위년·1849년) 오후에 최다 판윤을 지낸 이가우가 새로 임명되면서 반나절 만에 옷을 벗어야만 했다. 고종대에 이기세, 한성근, 임웅준도 하루 만에 교체됐다. 판윤대감 이가우 역시 총 재임 기간은 1년3개월에 불과했다.

영조 때 병조판서를 지낸 풍산 홍씨 홍상한(1701~1769)과 그의 아들 낙성(1718~1798), 손자 의모(1743~1811)가 3대에 걸쳐,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달성 서씨 서종태(1652~1719)와 그의 두 아들 명균(1680~1745)과 명빈(1692~1763)은 3부자가 한성판윤을 각각 지냈다.

정조 14년(1790) 12월 한성판윤 구익(1737~1804)은 창경궁 정문인 홍화문 밖 국왕 거둥길의 눈을 치우지 않아 파직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3개월 뒤에 한성판윤에 다시 임명됐다. 일제시대에 경성부로 격하된 서울 수장은 경성부윤으로 22명 가운데 대부분이 일본인이었다. 광복 후 서울시로 변경된 이후에는 관선 시장 29명과 민선 시장 5명이 서울의 수장을 맡았다.

도시계획·건설은 오늘날 서울시장과 마찬가지로 한성판윤의 중요한 업무였다. 초대 한성판윤 성석린은 경복궁을 신축하고 도성을 축조하면서 도시 기반을 다졌으며, 홍계희(영조 36년·1760년)는 대대적인 청계천 준설로 서울 주 배수로의 기능을 회복시켰다. 이채연(광무 2년·1898년)은 간선도로를 확장하고 도로 위 쓰레기와 진흙탕을 정비해 근대적 도시 건설의 기초를 다졌다.

조선시대 한성판윤은 오늘날 서울시장과 달리 형사사건도 담당했다. 살인·강도 등 중죄인은 형조가 구속해 죄를 다스리게 하되 절도, 간통, 친족 간 불화, 구타, 욕설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는 지방 수령이 처리할 수 있었지만 한성부는 형조와 사실상 동등한 파워를 지녔다. 단종 즉위년(1452년) 8월 서울 근교 미사리에서 어린이를 유기한 사건이 발생하자 임금은 한성부가 범인을 국문하라고 지시했다. 태종 4년(1404년) 사노 실구지 형제와 박질이 상전인 내은이라는 여성을 강간한 사건도 한성부에서 맡아 자백을 받아낸 뒤 능지처사했다고 실록은 썼다.

한성부는 사법기관으로서 제반 소송과 재판에 관한 사무도 관장했는데 중앙에 소재한 3개의 사법행정 기관인 삼법사에 형조, 사헌부와 함께 한성부도 포함됐다. 특히 논밭과 가옥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나 묘지에 관한 산송, 시체 검시 등 업무는 한성부가 전국을 커버했다. 한성판윤은 오늘날 서울시장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최병일 박사의
말랑말랑 경제학

가상화폐도 예외없는 '네트워크 외부효과'
휴대폰·외국어처럼 많이 쓸수록 효용성 커



〈사진 제공=게티이미지뱅크〉

민수 씨는 가족 여행을 떠나기 전 깜빡하고 휴대전화 충전기를 챙기지 않았다. 평소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흔한 물건보다는 독특한 것을 좋아하는 민수 씨는 휴대전화 역시 국내에서는 같은 기종을 찾기 어려운 유럽산을 쓰고 있었다. 민수 씨는 의도치 않게 휴가 동안 오롯이 가족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민수 씨 아내는 "예년과 달리 휴가 동안 남편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어 좋았다"며 칭찬했다. 그러나 정작 민수 씨는 속으로 '이제 다른 물건은 몰라도 휴대전화만큼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평범한 기종을 선택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민수 씨의 휴대전화 사례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상품을 많이 사용할수록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의 효용 또는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을 '네트워크 외부효과(Network Effect)'라고 한다. 외국어 공부를 할 때 기왕이면 사용 인구가 많은 언어를 선택하거나, 가능하면 이용자가 많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택하는 현상이 바로 네크워크 외부효과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산업이나 상품 시장에서는 특정 상품의 이용자가 일정 수준 이상, 시장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면 나머지 사용자들도 자연스럽게 해당 상품이나 시장으로 몰리는 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네트워크 외부효과는 앞서 예로 들었던 휴대전화, SNS와 같은 첨단 정보기술(IT) 산업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화폐제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 네트워크 외부효과는 화폐의 3대 기능인 교환, 가치척도, 가치저장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가진 것과 같은 종류의 화폐를 여러 사람이 많은 시장에서 두루 사용할수록 내가 가진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 많은 사람이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거래에서 빈번하게 사용할수록 해당 화폐의 교환 기능은 향상된다. 또 화폐의 교환 기능이 강화돼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절대적인 숫자가 확보되면 화폐 가치가 특정 경제 사건이나 소수의 의도에 따라 쉽게 변동하지 않게 돼 화폐의 가치저장 기능과 가치척도 기능이 함께 강화된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외부효과와 화폐의 3대 기능 간 관계는 가상화폐 미래를 이해하고 전망하는 데 훌륭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절대적인 숫자나 가상화폐가 실물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달러화나 유로화 같은 전통적인 통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은 미흡하다.

이용자 20억명 넘는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 발행 계획
지급준비금제도인 '리저브'등
가상화폐 문제점 보완해 주목

그런데 이런 가상화폐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세계 최대 SNS 업체인 페이스북이 지난 6월 가상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페이스북이 발행하려는 가상화폐는 별자리 가운데 천칭자리에서 이름을 빌려와 '리브라(Libra)'로 부른다. 페이스북 리브라는 단순히 대형 IT 업체가 기획한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가상화폐들이 갖고 있던 구조적 문제들을 영리하게 보완했기 때문에 정부, 기업, 금융 투자자 할 것 없이 많은 이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페이스북은 20억명 넘는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어 명실상부 SNS 산업에서 덩치가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페이스북 이용자 가운데 10%만 가상화폐인 리브라를 사용해도 앞에서 언급한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은 기존 가상화폐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리브라 리저브(The Libra Reserve)라는 제도를 마련했다. 리브라는 최악의 경우 페이스북이라는 발행 주체가 파산해도 안정적으로 그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리브라 리저브라는 지급준비금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가상화폐 발행 주체인 페이스북이 리브라 리저브로 확보한 주요국의 통화량만큼만 가상화폐를 발행하겠다는 약속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시장의 신뢰는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리브라에 투자하고 이것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페이스북의 강력한 기술과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한 영향력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리브라 리저브 제도로 인한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강점으로 페이스북은 리브라가 국가신용이 바닥까지 떨어져 사실상 은행권을 발행할 수 없는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법정화폐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야심 찬 기대를 하고 있다. 또 정부 신용도가 앞서 말한 두 국가처럼 극단적으로 낮지는 않지만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개발과 보급이 미흡한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에서는 페이스북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해온 편리하고 안정적인 가상화폐와 금융 상품들이 시장을 쉽게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기사를 다 읽은 후 얼마나 이해했는지 OX퀴즈로 확인해 볼까요.

1.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큰 산업은 독점보다는 다양한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완전경쟁시장 형태로 수렴한다. ( )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방준비제도(Fed)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가상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됐다. ( )
3. 페이스북이 발행하려는 리브라의 리저브 제도는 과거 금본위제도와 유사한 통화시스템이다. ( )

▶정답/1.X 2.X 3.O



임성택 박사의
도전과 응전의 경제학

1929년 대공황이 경제학 주류 바꿨다

미국의 연방 항공기 운항 규정은 피로 쓰였다는 말이 있다. 항공사고로 큰 희생을 치를 때마다 같은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규정을 개선해 오면서 현재의 세밀하고 방대한 분량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경제학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련을 겪을 때마다 극복 방법을 찾으며 발전해 왔다.

경제의 역사에 기록된 가장 큰 시련은 1929년 대공황이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호황을 거듭하던 미국 경제는 투자 기회가 고갈되고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불황으로 접어들었다. 당시 경기 안정 수단으로써 통화정책의 효능을 잘 알지 못했던 중앙은행은 액셀을 밟아야 할 때 브레이크(긴축적 통화정책)를 밟아버렸고, 평범한 감기(경기 침체)로 끝날 수 있었던 상황을 폐렴(대공황)으로 악화시켰다.



대공황 당시 공짜 배급을 기다리는 시카고의 실업자들. 〈사진 제공=다산북스〉

대공황 당시 미국에서 발생한 경기 침체는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위기의 근원지였던 미국 실업률은 25%까지 상승했고 경기가 3년 동안 회복 없이 추락하면서 국민소득은 절반으로 줄었다. 한국 경제가 겪은 가장 큰 시련인 1997년 외환위기 때 실업률(8%)·경제성장률(-5.5%)과 비교해 보면 그 참혹함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880~1920년대 대륙횡단철도를 건설하고 포드 T모델 자동차를 1500만대나 만들던 산업역군들이 이제 도시 빈민이 돼 구걸하는 신세가 돼버린 것이다.

불황이라는 것은 기묘하고 모순적인 현상이었는데, 분명히 상점에 상품이 쌓여 있지만 문제는 도무지 팔리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물건이 안 팔리면서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고, 실업률이 상승한다. 실직한 가정은 소득이 끊겨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아직 직장이 있더라도 실직에 대비해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다 보니 더욱 상품이 안 팔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된 것이다.

당시 불황에 대한 대처 방법은 그저 '지켜보기'였다. 대공황 시절 경제학의 주류였던 고전학파 시각에서는 불황은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것이었다. 소비자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이 증가하면, 예금이 늘어난 은행들은 더 낮은 이자로 기업들에 돈을 빌려주게 되므로 기업의 공장 건설 등 투자가 늘어난다. 결국 늘어난 투자지출로 근로자들에게 일자리와 임금이 생기면서 다시 소비가 증가한다. 또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부족해지면 근로자들은 더 낮은 임금으로도 기꺼이 일하려고 할 것이므로 기업은 더 낮은 인건비로도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美실업률 25%까지 치솟는데
당시 주류 고전학파 해법은
"불황은 일시적 그저 지켜보자"

은행 돈 넘쳐도 기업 투자안해
실업자 넘쳐도 임금 안내려가

고장난 이론에 케인스 반기
"정부가 나서 일자리 만들라"
새로운 거시경제학 탄생 알려

이러한 두 가지 경로 덕분에 경제는 항상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일하고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균형으로 도달하므로, 불황이 오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내버려 두면 결국 안정을 찾는다고 믿었다. 마치 오뚝이처럼. 1930년대에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그 오뚝이가 고장난 것을 목격하게 된다. 몇 년째 회복되지 않는 대공황은 그들에게는 주머니 사정에서나 학문적으로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현상이었다.

대공황이 낳은 경제학의 스타는 단연 케인스였다. 지적으로 자신만만했던 케인스가 보기에는 고전파 경제학은 논리적이고 고상하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었다. 전통적 경제 이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설명력이 있는 불완전한 것인 반면, 자신의 이론은 더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자신감으로 그는 자신의 책을 '일반이론(General Theory)'이라고 이름 붙였다.

케인스는 고전파 경제학가 생각하는 두 가지 자동 회복 경로가 작동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기업은 금리가 하락해도 쉽사리 사업을 확장하지 않는다. 기업가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동물적인 충동(animal spirits)'에 의해 감각적으로 사업거리를 찾기 때문이다. 또 실업률이 상승해도 임금은 쉽사리 하락하지 않는데 이는 노동자 혹은 노조가 월급 명세서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참기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를 내버려 두면 저절로 회복되지 못한다. 혹은 너무 오래 걸린다. 기다리다가는 '우리 모두 죽어'버릴지도 모른다("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케인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케인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택, 도로나 댐 건설 등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 가계는 상품을 소비할 여력이 생기고 기업에서도 투자와 고용을 증가시킨다.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구매력)을 회복시켜 고전파에서 말하는 '균형'으로의 복귀를 돕자는 것이다. 정부가 어떤 사업을 시행할지 잘 모르겠거든, 고민할 시간에 빨리 땅에 돈 항아리라도 묻으라고 케인스는 주문했다. 기업들이 보물 찾기를 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고용할 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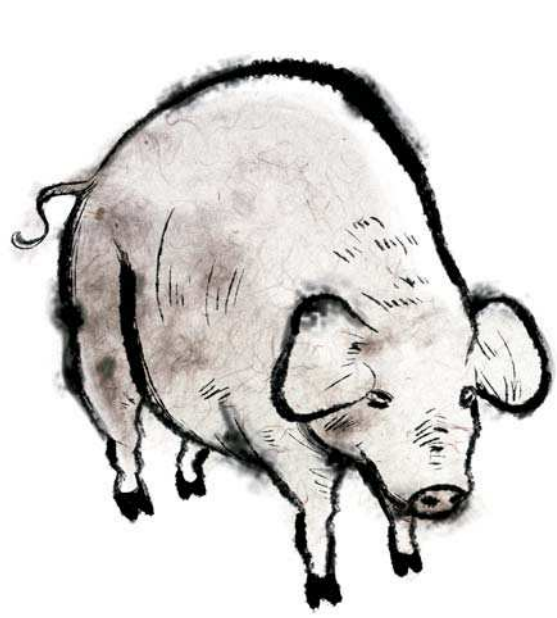
케인스 업적으로 인해 거시경제학이 경제학으로부터 새롭게 분화됐다. 케인스가 경제학자 이외에도 후세에 미친 지적 영향은 몹시 크다. 우리는 보통 절약을 중요한 미덕으로 교육받으며 자라왔다. 불필요하거나 순간적인 만족을 자제하고, 더 중요한 일에 돈을 쓸 수 있도록 돈을 절약하라고. 반면 국가경제를 논할 때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정부가 여러 공공사업에 돈 쓰기를 원한다. 케인스 주장은 우리의 경제관념에 혼란을 준다. 낭비를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니! 경제가 좋지 않다면, '낭비'라도 해야 한다. 길가에 쓰레기를 버려라. 청소부의 일자리를 빼앗고 싶지 않다면. 만약 당신의 친구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렸다면, 도덕심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가 케인스 주의자라서 그렇게 행동한 것일 수 있으니 관대하게 보아 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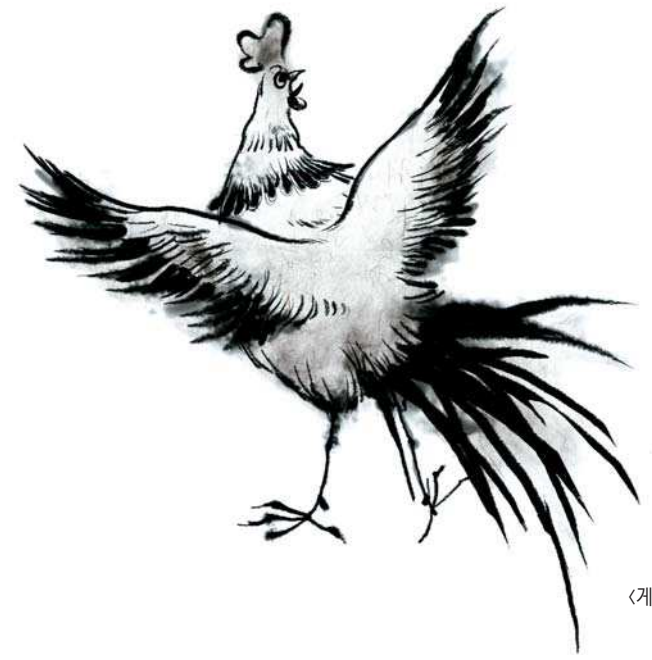
기사를 다 읽은 후 얼마나 이해했는지 OX 퀴즈로 확인해 볼까요.

1. 대공황기에 소비 위축, 투자 감소, 실업률 증가의 악순환이 수년간 지속되었다. ( )
2. 대공황 당시 고전학파 경제학이론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 )
3. 케인스는 경제를 불황에서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정답 1. O 2. X 3. O

돼지고기가 닭고기 가격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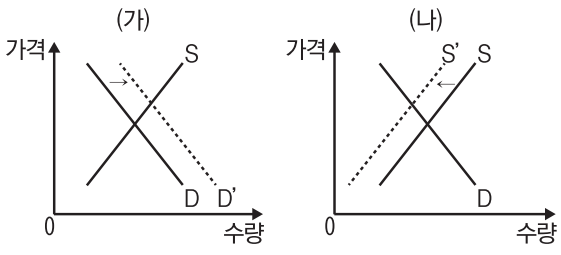


〈게티이미지뱅크〉

틴매경TEST 고득점을 위해서는 선행학습이 중요하다.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가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를 소개한다.

1. 아래 [그림]은 닭고기 시장의 수요와 공급 변화를 나타낸다. 다음 중 (가), (나)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닭고기는 정상재이며, 돼지고기와는 대체재 그리고 파슬리와는 보완재이다.)

닭고기 시장의 수요 및 공급변화



|보기|
㉠ 파슬리의 가격상승은 (나)의 원인이다.
㉡ 돼지고기의 가격상승은 (가)의 원인이다.
㉢ 조류독감으로 인한 양계농가의 피해는 (나)의 원인이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는 (가)의 원인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해설)

위 문제는 재화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 주어진 그림에서 (가)는 닭고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며, (나)는 닭고기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파슬리는 닭고기의 보완재이므로 파슬리 가격이 상승하면 함께 소비하게 되는 닭고기의 수요가 감소한다. 만약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인 닭고기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조류독감으로 인해 양계농가가 피해를 받게 되면 닭고기 공급이 감소한다. 한편, 경기불황으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하면 정상재인 닭고기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정답은 ③

2. 아래 표는 M국의 금융종합소득 과세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금융 종합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5%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20%
46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

|보기|
㉠ 금융종합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 세액은 50만원이다.
㉡ 금융종합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세액은 600만원이다.
㉢ '12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하락하면 모든 구간의 납세자 부담이 감소한다.
㉣금융종합소득이 4600만원인 사람의 처분가능소득이 4610만원인 사람보다 많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해설)

금융종합소득이 1000만원일 경우 첫 번째 과세표준 구간 내이므로 5%의 세율만 적용되어 세액은 50만원이 된다. 소득이 3000만원일 경우 우선 1200만원에 5%(=60만원), 첫 번째 구간을 초과하는 1800만원에 20%(=360만원)가 적용되어 총 42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첫 번째 구간의 세율은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므로 세율 하락 시 모든 납세자의 부담이 감소한다. 30%의 세율은 전액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4600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에만 적용되므로, 소득이 과세표준 구간을 넘어갈 때 세후 소득이 감소하지 않는다. 정답은 ②

최봉제·임성택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경제용어 돋보기

▶ETN (Exchange Traded Note) : 상장지수채권을 말한다. ETN은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상장돼 손쉽게 사고팔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주로 증권사가 자사의 신용에 기반해 발행하며 기초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하는 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것으로, ELS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만기 이전 반대 매매가 가능하다.

▶GRDP(지역내총생산) : 일정한 지역 안에서 특정 연도에 새롭게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가치 합계를 말한다.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는 전국 단위로 집계되는 GDP(국내총생산)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시도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지 생산 측면에서 집계한 수치이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1985년 이후 GRDP를 작성해왔으며 1993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HMR (Home Meal Replacement) : 가정식 대체식품의 약자로 일종의 즉석식품을 뜻한다. 일부 조리가 된 상태에서 가공·포장되기 때문에 간단한 조리로 혼자서도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병일 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아하! 과학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죽음 택하는 세포들



원은지 박사의
생명과 과학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올챙이를 가져왔다. 또 한 번 엄마의 열성이 필요한 때다. 큰 플라스틱 통에 작은 돌을 깔고 물을 넣었다. 먹이도 주고 물도 갈아주며 '다리야 나와라' 기도하며 몇 달을 돌봤다. 금세 죽어 버렸다는 친구들 틈에서 우리 집 올챙이는 어느새 뒷다리가 나오고 올챙이 얼굴은 이미 개구리같이 넓어졌다. 점점 꼬리도 짧아지는 것 같다. 추워지기 전에 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보내주자고 했다. 그런데 작은 아이가 말린다. 꼬리가 잘려 나가면 약이라도 발라주고 보내줘야 하지 않냐는 거다. 늘 글을 쓸 주제를 주는 아이들이 고마울 따름이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증식은 성장과 생명의 연장으로 여겨진다. 그런 세포도 '생활사'를 갖는다. 모세포 분열을 통해 태어나고 다시 분열하며 언젠가는 수명을 다한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세포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1961년 레너드 헤이플릭은 보통의 세포가 70번 정도의 분열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헤이플릭 한계'라 이름 붙였다. 그리고 1980년 분자생물학자 엘리자베스 블랙번은 헤이플릭 한계의 이유가 세포의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유전체 말단에서 특정 염기서열이 반복돼 나타나는 부위로 세포 증식 때 유전자가 소실되는 것을 방지)와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염색체를 보호하기 위해 양 끝에 갖는 특정 염기서열(텔로미어)이 반복되는 분열에서 점점 짧아지고, 너무 짧아지게 된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화의 단계로 간 것이다.

세포의 죽음에는 외부의 스트레스에 의한 '네크로시스(세포 괴사·Necrosis)'와 스스로 선택한 '아폽토시스(세포사멸·Apoptosis)'가 있다. 네크로시스는 충격이나 스트레스로 세포가 손상되며 백혈구의 염증반응이 일어난다. 멍이 드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에 아폽토시스는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다. 그리스어 ptosis(fall)와 apo(apart), 떨어져 나간다는 뜻에서 기인한 이 세포의 죽음은 전략적인 죽음이다. 살기 위해 죽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네크로시스와 다르게 면역반응을 거의 유도하지 않으며 세포의 잔재는 마크로파지(대식세포·비특이성 식작용 및 세포흡수작용 등의 역할을 한다) 등의 면역세포에 의해 제거된다.

겨울철 일조량이 적고 강수량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을 버텨내기 위한 식물의 전략은 낙엽이다. 떨켜층(나무의 줄기와 잎자루 사이의 자리에 형성되는 분열조직 또는 유조직 세포층)에서 일어나는 아폽토시스로 나무는 잎을 떨어뜨린다. 이 역시 많은 양의 에너지(ATP)를 사용하지만 아폽토시스에 의한 에너지 소비는 겨울철 잎을 지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보다 적다. 즉, 예정된 세포의 죽음(세포예정사·Programmed Cell Death·PCD)을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세운 것이다.

개구리가 되면 필요 없는 꼬리를 없애는 것, 그리고 주걱같이 생긴 발에서 발생과정을 거치며 물갈퀴가 있는 발 모양을 갖는 개구리와 오리. 반대로 다섯 개로 잘 분리된 우리의 손가락 역시 전략적인 아폽토시스, PCD의 결과다. 지난 7월 도쿄공업대의 다나카 교수 연구팀은 발생과정의 산소 농도가 개구리 발가락 사이의 아폽토시스를 결정해 물갈퀴가 생기거나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발달 세포에 게재했다. 산소의 농도가 낮은 환경에서는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남아 있었으나 산소의 농도를 높여준 환경에서는 아폽토시스가 활발히 일어나 발가락의 물갈퀴가 사라진 것이다. 프로그램된 세포 사멸의 결과가 과거 물속에 살던 생물이 물 밖으로 나오게 된 생물 진화와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올챙이 꼬리가 사라지거나
가을철 낙엽지는 것 모두
전략적 세포사멸 '아폽토시스'

염색체 손실막는 텔로미어
70번정도 증식후 분열 멈춰
에너지 아끼고 생명 유지



〈사진 제공=게티이미지뱅크〉

다른 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의로운 아폽토시스도 있다. 건강한 세포를 남기기 위해 손상된 세포는 스스로 사멸하는 길을 택하기도 한다. 방사선이나 바이러스 감염, 활성산소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손상된 세포는 일단 고치는 것을 시도한다. 그러나 그 손상이 클 때는 복구보다는 모두 없애버리는 과정을 선택한다. 스스로 사멸함으로써 손상된 유전자가 전달되는 것을 막아 다른 세포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p53'이라고 하는 유전자다. 세포 분열을 멈추고 아폽토시스가 일어나도록 시동을 걸어준다.

그러나 어떤 세포는 이 진화과정에서 얻은 훌륭하고 의로운 시그널을 따르지 않기도 한다. 그리고 이같이 사멸돼야 할 세포들의 수명 연장은 질병과 직결된다. 그게 바로 암세포다. 암세포와 아폽토시스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이를 이용해 암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아폽토시스를 유도하는 치료제가 항암제다. 그러나 화학적 항암제 치료의 실패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암세포가 항암제에 대한 회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고베대 가지모토 교수와 연구팀은 암세포가 세포사멸을 회피하는 기작을 밝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시그널'에 게재했다. 암세포 생존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세포 내 시그널단백질의 하나인 비전형 단백질 키나아제C(aPKC)를 억제했을 때 암세포의 아폽토시스가 유도되는 것을 확인하고, 스핑고신 1-인산(S1P)이 이 단백질 활성화에 관여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반대로 아폽토시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네이처커뮤니케이션에는 화학적 항암치료에 의한 영구적 탈모와 아폽토시스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가 발표됐다. 모낭줄기세포는 성장기에 증식하고 이후에는 세포 증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암세포와 같이 빨리 증식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화학적 항암치료에 저항성을 갖는다고 생각돼온 반면 다수의 환자는 화학적 항암치료 후 영구적 탈모를 겪고 있다. 서울대병원 권오상 교수 연구팀은 항암치료에 의한 모낭줄기세포의 조직 손상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반응성 증식(Priming mobilization)이 발생하는데 이때 모낭줄기세포가 DNA 손상에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누적된 화학적 항암치료에 의해 DNA가 손상됨에 따라 모낭줄기세포에서 대량의 세포 사멸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생명의 유지와 직결된 신기하고도 복잡한 세포의 삶은 앞으로도 많은 연구자에게 도전이 되고 나아가 우리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것이다.

한양대 해양·대기과학연구소 연구교수

2019년 9월 4일 수요일 매일경제

영화와 과학

머리 확 좋아지는 약이 있다면…



원호섭 기자의
필름 사이언스



영화 '리미트리스'의 한 장면.

영화 '리미트리스'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지난달 22일 시작됐다. 수능을 약 세 달 앞둔 시점이 어쩌면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문득 떠오르는 상상. 머리가 좋아지는 약은 없을까. 이 같은 상상을 그린 영화가 있다. 2012년 개봉한 영화 '리미트리스'다. 주인공 에디 모라는 무능력한 작가로 등장한다. 마감은 다가오는데 한 페이지도 쓰지 못했고, 이혼 경력까지 있으며 현재 애인에게도 버림받는 존재로 그려진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전처의 동생이 'NZT-48'이라는 약을 주고 가게 되는데, 이 약을 먹고 나자 무려 수십 년 전 대학생 때 읽었던 책들의 내용까지 모조리 떠올릴 정도로 머리가 맑아짐을 느낀다. 써지지 않던 글도 단숨에 써서 출판사로부터 "계약하자"는 말을 듣게 된다. 정말 이런 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까지 머리가 좋아지는 약이 출시된 적은 없다. 하지만 뇌 과학자들은 "언젠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기억력을 향상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자주 발표되기 때문이다. 많은 과학자들이 뇌에 전기 자극을 통해서 기억력을 향상시켰다는 연구 성과를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진은 뇌에 작은 전기자극을 줘서 뇌의 깊은 곳에 자리한 해마, 즉 기억력에 관여하는 부위를 자극하면 실제로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연구 수준인 만큼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 약이 상용화된 적은 없다.

하지만 인간은 항상 불가능을 꿈꾼다. 머리가 좋아지는 약도 마찬가지다. 최근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기억력 개선이나 집중력을 높이는 데 좋다고 알려지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를 복용하는 일반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서도 매년 수능을 앞두고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ADHD 약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의료 전문가들은 일반인이 ADHD 약을 먹으면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대신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복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영화 속 풍경
이혼당한 무능력한 작가가
베스트셀러 작가로 인생역전

실제로 그런 약 있나
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기억력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美·유럽서 일반인 복용 급증
그러나 장기간 추적연구 결과
대부분 '위약 효과'로 판명

미국 캘리포니아대와 영국 칼리지런던대 공동 연구진은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ADHD 증상 완화용으로 사용하는 암페타민과 같은 '중추신경흥분제'를 복용한 사람이 2015년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1937년 미국 정신과 의사 찰스 브래들리가 '벤제드린'이라는 약물을 이용해 주의력이 산만한 아이들을 변화시켰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뒤 아데랄·리탈린과 같은 암페타민이 ADHD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논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중추신경 흥분제로 뇌에 각성 효과를 일으켜 일시적으로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암페타민은 이후 ADHD 처방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ADHD 환자 외에 일반인도 암페타민을 먹었을 때 집중력과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수험생과 대학생이 벼락치기 공부를 할 때 암페타민을 복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학술지 네이처가 과학자 14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20%가량이 뇌기능 강화를 위해 이들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약물을 당초 의료 목적 외 비의료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약학적 인지능력 향상(PCE)'이라고 부른다. 연구진에 따르면 중추신경 흥분제를 PCE로 활용하기 위해 1년 이내 복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015년 5%에서 2017년 14%로 크게 늘어났다. 2015년에는 7만9640명, 2017년에는 2만9758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번 연구에는 아데랄·리탈린과 같은 ADHD 치료제뿐 아니라 수면장애 치료제 '모다피닐'과 코카인도 포함됐다. 이들 약물을 가장 많이 복용한 국가는 미국으로 2015년 응답자 중 20%가 집중력이나 기억력 향상을 위해 약물을 복용했다고 밝혔지만 지난해에는 30%에 달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는 3%에서 15%, 영국은 5%에서 23%로 껑충 뛰어올랐다.

하지만 네이처는 "이 같은 약물이 지적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기억 개선 효과가 적거나 플라세보(위약) 효과일 경우가 높다"고 지적했다.

2013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연구진이 학술지 '신경약리학'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46명을 대상으로 아데랄 복용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지기능 향상은 착시효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인지기능 향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미국 글로벌뇌과학재단이 학술지 '뇌와 행동'에 발표한 리뷰 논문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시 연구진은 "과거 발표된 PCE 관련 논문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이나 청소년, 운동선수 등 일반인이 ADHD 치료제를 복용했을 때 인지능력이 향상된다는 보고는 일부에 국한됐다"며 "오히려 이 같은 약물 오용은 정신병, 심근경색, 심근증, 갑작스러운 죽음 등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장기적인 연구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치의 암호를 푼 힘 '다양성'



황서현 연구원의
심리학 교실



〈사진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절대 안풀린다던 독일군 암호
영국이 해독해 전쟁 승리로

수학자에만 임무 맡기지 않고
체스 선수·고서적상 등 참여

참신한 해석 가능했던 원동력

성별·연령·성격·가치관 등
다양성 많아야 건강한 조직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은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습관, 문화, 종교 등 사람들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돼 있음을 알고 있지만, 실제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 속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사고와 행동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해 불편함을 일으키곤 한다.

이러한 다양성의 범위는 작게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성별의 차이, 자신들과 부모 간 세대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학력 및 소득수준의 차이, 더 큰 범위로는 국가 간 인종 및 종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외한 사람들 간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학문을 심리학이라 말할 수 있으며, 그 범위가 비교적 큰 사회적 범위라면 사회심리학에서,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일하는 조직 내 범위라면 산업 및 조직 심리학에서 조직 내 구성원들 간 차이와 다양성에 대해 다루게 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다양한 사회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가정, 사회, 국가 등 모든 조직에서 다양성 관리에 실패하는 극단적인 경우 타인과 다른 그룹에 대해 배타성과 공격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산업 및 조직 심리학적 관점에서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은 꼭 나쁜 것으로 치부되진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이니그마 머신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니그마 머신은 적군에게 어떤 정보도 주지 않으면서 공격을 편성하고 전쟁물자를 보급하며 원활히 의사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밀 암호화 기계였다. 이니그마로 만든 암호는 매우 복잡해서 이를 풀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작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영국군은 이를 풀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 성공의 열쇠는 바로 영국정보부가 배경과 직업, 출신이 서로 다른 암호해독자들로 팀을 꾸린 점이었다. 암호해독 임무를 맡은 이들 중에는 고도로 복잡한 데이터 수열을 포착하고 처리하는 훈련을 받은 수학자와 공학자도 있었지만, 작가, 언어학자, 고대 그리스로마 연구가, 윤리학자, 고서적상, 십자말 풀이 중독자, 체스 챔피언 출신 등 다양한 사람이 있었다. 이들은 각자의 지식을 모으고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서로 협력해 암호를 해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만일 비슷한 능력을 지닌 전문가들이었다면 암호를 해독하지 못했을 것이다.

위 이야기와 같이 조직 내에서 아이디어 개발 회의를 진행할 때 기존에 진행하던 사람들과 다르거나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집단 내 소수자의 참여를 독려했을 때 다양성으로 인한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구성원 개개인과 팀의 창의성 및 조직 전체의 지속적인 혁신에 대한 요구를 더 많이 받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주요 요인으로 다양성이 꼽히고 있으며, 구성원 다양성이 광범위한 인지적 자원을 제공하고 조직 내 효과적인 지식 창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등 긍정적인 가치를 보유함을 많은 연구들이 밝혀냈다.

일반적으로 다양성은 표면적 다양성과 내면적 다양성으로 구분된다. 표면적 다양성이란 성별, 인종, 민족, 나이 등 표면적으로 쉽게 파악될 수 있는 특성의 차이로 사람들의 사고나 행동이 반영된 것이 아닌 사람의 외적 형태에 따라 구분되는 다양성을 뜻한다. 이것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고정관념과 편견은 지속적 교육을 통해 감소시키거나 타파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인 내면적 다양성은 개인의 성격, 가치관, 선호도에 대한 차이를 뜻한다. 내면적 다양성의 경우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생활함으로써 공감을 통해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인다면, 다양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가능성을 줄이고, 창의적 아이디어의 생산과 같이 다양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조직 내 사람들은 다양한 특성과 의견으로 부딪치는 경우가 많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조직임을 반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포천지가 선정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의 HR 전문가 121명 대상으로 조직 다양성 관련 서베이를 실시한 결과 '조직의 다양성 관리가 조직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에 91%가 동의했고, '다양성 관리가 기업문화를 증진시키고, 고객 관계를 개선시킨다'에 각각 77%와 52%가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렇다면 다양성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조직을 둘러싼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라 말할 수 없지만, 진정한 조직문화 구성의 올바른 시작을 위해서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지녀야 한다. 다양성이 조직 내 구성원 간 서로 다른 현실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라면, 포용성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다양한 연구와 사례들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과 어느 정도 깊이의 다양성이 우리 조직에 적합할지 적용하고 판단함으로써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이 속에서 협조와 발전을 도모하는 조직문화를 구성해 나가야 한다. 우리 조직에 적합한 다양성 정도와 조직문화를 조성했다면 그 이점을 살리기 위한 지속적인 변화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우수하고 조직에 적합한 특성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고, 보유하며, 끊임없이 조직 구성원들을 동기 부여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알아본 다양성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 및 조직 장면에 심리학을 적용하여 구성원들의 행복과 조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 다루는 다양한 분야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을 추천한다.

〈ORP연구소 주임연구원〉

첨단 과학기술 사회에도… 올바른 윤리적 가치 중요



〈게티이미지뱅크〉

이미래 님의 하루는 아침 식전 혈액 테스트로 시작한다. 나의 혈액 한 방울이 오늘 하루 필요한 운동량과 식사 지침을 정해주고, 올 한 해 건강보험 프로그램과 보험비를 결정해준다. TV를 켜니 인공지능(AI) 무기를 활용한 테러리스트 일망타진, 대형 빌딩 화재를 진화하는 로봇의 활약상, 최첨단 AI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금융 수익률, 그리고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불치병 치유 등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하지만 국가 통신·전력 시스템이 무기화된 AI 공격으로 공항, 은행, 병원을 한꺼번에 마비시키고, 개인 지놈 정보 유출이 인권을 위협한다는 소식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오늘은 함께 사는 반려 로봇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날이다. 내 생활의 변화와 요구에 맞춘 반려 로봇에 내장된 빅데이터를 업그레이드하고 로봇에 탑재된 AI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다. 반려 로봇에 탑재된 AI는 스스로 딥러닝을 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내 필요를 충족하는 반려가 된 지 오래다. 때론 내가 반려 로봇에 통제당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오늘은 지능형 학습 플랫폼에 들어가 인간과 지능형 로봇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윤리적 가치가 무엇인지 학습하고 싶다.

우리는 내 몸의 피 한 방울로 미래 다가올 건강 위험부터 건강보험료까지 결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의 진보는 삶의 질을 풍요롭고 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생태 위기와 인류의 대재앙도 가져다줄 수 있다고 한다. 첨단 AI가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도 간과할 수 없다. AI는 방대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복합성으로 인간의 통제와 예측을 벗어날 수 있다. 비의도적이든 의도적이든 AI 개발자가 갖는 차별과 편견, 그리고 인간적 실수가 만들어내는 피해도 많다.

4차 산업혁명 진보는
삶의 질 풍요롭게 하지만
인간 존엄성 훼손 우려도
진실추구·책임감 등 갖춰야
유망한 직업 얻는데 도움
무엇을·어떻게 바꿀까보다
'우린 누구인가' 성찰도 필요

4차 산업혁명의 회오리는 인간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기대 못지않게 인간 존엄성의 근간을 훼손하고 인간의 욕심, 미움, 무책임, 게으름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혼돈과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혼돈과 피해의 여파는 첨단 기술 능력이 부족한 개인에게 경제적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소수에게 집중된 부의 결과를 초래해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그리고 인간 소외 현상을 만들 수 있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파급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부터 인간과 AI로봇이 공존하는 첨단 과학기술 사회에서 '우리는 누구이며 왜 사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한다. 인간적 가치란 무엇이며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되짚어 보는 것은 미래에 닥칠 혼돈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자 지혜다. 윤리적 가치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인간 존엄성을 지키고 예상되는 파열과 혼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전문적 영역 이전에 수천 년 인간 역사에서 체득한 원칙과 상식적 수준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미래학자 클라우스 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 더 넥스트(The Next)'라는 책에서 첨단 과학기술 사회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7가지 윤리 강령을 강조했다.

첫째, 진실 추구다. 모든 연구와 실험의 시작·과정·결과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결과를 거짓 없이 수용하는 자세다. 인간 지놈 실험에서 환자 동의를 받아 수집된 유전 정보라 할지라도 데이터 가공 과정에서 타인의 이익을 위해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진실 추구에 위배된다.

둘째, 다양성 확보다. 첨단 과학기술의 회오리 안에서 경험적 증거와 다양한 관점의 집단 아이디어를 수집·평가하는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서 운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지 혹은 보행자 안전을 우선할 것인지 등과 같이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수집·분석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의사결정이 되도록 다양성을 확보하는 태도를 실천해야 한다.

셋째, 대중과의 교류다. 보편타당한 관점을 갖기 위해 공동체 의식 안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인간의 삶 그리고 인간과 로봇의 의미 등을 깊게 성찰하면서 인류가 추구하는 자유·평등·인권·존중 등 공동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의사소통하고 사유하며 성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실천해야 한다.

넷째, 의사결정권자 간 네트워킹이다. 상호 다른 사안일지라도 의사결정자들이 왜, 무엇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고,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 네트워킹을 통해 협업·협력하면서 각각의 의사결정 방향이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 변화를 이끌 것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멘토가 되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타인에게 나누고, 그들이 성장하고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격려와 동기를 부여하는 행동이다. 멘토링은 멘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자신의 성공 경험을 타인에게 투영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이 있는 리더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만든다.

여섯째, 위험 최소화다. 모든 사안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위험 예측이 필요하며 예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안전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며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유념해야 하는 소중한 가치다.

마지막으로 책임감이다. 자신이 결정하고 취한 행동과 관련해 모든 일에 책임지는 태도다.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개인의 태도는 매사에 신중한 언어 생활을 습관화할 것이다. 이러한 7가지 윤리가치관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직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지연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국가진로교육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공인번호 : 기획재정부 제2018-178호
등록번호 : 2009-0342호

매일경제
MAEIL BUSINESS NEWSPAPER

찾았다!
취업으로
가는 문
매경TEST

2019년
시험일정
9/21, 11/16

자격명 :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매경TEST) | 자격의 종류 : 국가공인민간자격(최우수,우수) / 등록민간자격(보통,미흡)
응시료 : 3만원 | 환불규정 : 정기접수 마감일까지 환불 신청시 응시료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제외),정기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불가
발급기관 : 매일경제신문사 | 대표자 : 장대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매경미디어센터)
연락처 : 02-2000-2469 | 홈페이지 : http://mktest.org | 이메일 : mktest@mk.co.kr

남은 시간은 공정하다… 이제부턴 '컨디션' '자신감'

모의평가 이후 어떻게 보낼까

수험생 감소와 반수생 증가 등 올해도 역시 수시모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다. 하지만 수시모집에서 소신 및 상향 지원 성향이 많음에 따라 여전히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대학, 전형, 학과에 따라 경쟁률이 다르긴 하지만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접수 후에는 앞으로 남은 논술과 면접을 비롯해 대학별 고사와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원서 접수는 잊어라

이미 원서 접수가 끝난 상황에 경우의 수를 자꾸 생각해봤자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다. 경쟁률이 낮은 다른 대학과 전형, 학과에 대해 아쉬움이 남겠지만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앞으로 남은 입시 준비에 매진해야 한다.

◆대학별고사 준비는 매주 틈틈이

9월부터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다. 수능 전에 대학별고사 위주로 준비하다 보면 수능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학별고사는 미리 주당 제한 시간을 두고 틈틈이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유형이라고 해도 대학에 따라 출제 경향에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맞춤형으로 준비한다.

제출한 원서에 '후회' 금물
수능까진 점수 올리기 집중
대학별 고사는 틈틈이 보강

9월 모의평가 성적 연연 말고
효과적 공부방법 찾아 집중
인강으로 정리하고 복습 필수

◆수능은 최선을 다해 준비

수시에서 합격하면 좋지만 불합격도 염두에 두고 정시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이라면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작년에는 국어 시험이 어려워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시험 난이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한 모의고사 테스트를 통해 실전연습을 해야 한다.

◆수능 후 대학별고사는 맞춤형으로

수능 후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전형은 경쟁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실제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못 미치거나 다른 대학에 합격해서 결시하는 학생이 많다.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면 수능 당일 저녁부터 대학별고사 준비에 올인해야 한다.

◆9월 모의평가의 중요성

수능까지는 이제 두 달 남짓한 시간이 남았다. 이 시기에는 학습 양에 대한 욕심보다는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학습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계획된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 시기에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해 취약한 영역과 단원을 집중적으로 복습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수능 기출문제와 9월 모의평가 기출문제에 대한 강의를 통해 수능 출제 경향에 대한 감을 잡고, 자주 나오는 유형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해야 한다.



9월 모의평가 활용법

기준	세부 내용
경쟁상대	전년 대비 감소한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재수생과 반수생 등이 대거 응시해 실제 수능 응시 집단과 가장 유사한 전국단위에서 자신의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출제기관	수능시험을 출제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마지막 시험이며, 수능시험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다.
학습설계	수능과 가장 유사한 9월 모의평가를 철저히 분석해 앞으로 남은 기간의 학습전략을 수립해 수능 성적 향상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입시전략	6월과 9월 모의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 지원과 정시 지원 여부를 종합해 입시전략을 점검하고, 모집 시기별로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

9월 모의평가는 실제 수능과 제일 유사한 시험이며 올해 출제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다. 하지만 대부분 수험생이 9월 모의평가 점수에만 연연하면서 가장 중요한 수능시험 대비를 소홀히 하는 실수를 경험한다. 즉 9월 모의평가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고,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자신이 중점적으로 대비할 부분과 성적 향상 목표치 등을 정해 대비하도록 한다.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해야 보다 효과적인 공부가 가능하다. 장기간의 수험생활로 심신은 더욱 피로하겠지만 마지막까지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막연히 하루에 얼마의 시간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 집중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공부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 자신이 취약한 영역과 단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학원에 비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취약 부분만 무제한 반복해 들으면서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능이나 모평의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 강의를 통해 스타 강사의 수능 출제 경향에 따른 분석과 대비법을 알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이다. 단 강의를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별도의 복습 시간을 갖고 자기주도학습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9월 모의평가 이후 TIP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수험생은 그 누구보다도 심적인 부담이 클 것이다. 하지만 전국 수험생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졌다. 지금부터 대입에서 최종적으로 승부를 내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강인한 의지가 필요하다. 수시모집 지원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만의 페이스를 조절해 가며 완주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남은 기간은 이제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춰 자신의 컨디션을 조절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또한 적절한 시간 배분과 학습 계획을 통해 깨어 있는 시간에는 최적화된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무리하게 모든 영역을 동일하게 공부하기보다 자신의 수준에 따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입시에 대한 불안감이나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심신이 지칠 수 있다.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를 잘 버티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도록 하자. 지금부터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남은 기간에 지나치게 잠을 줄이고 무리하게 공부하다 보면 실제 수능 시험까지 가기도 전에 지친다. 주말이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간단한 운동이나 산책을 하면서 몸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박정훈 수석컨설턴트
입시연구소 행복한3월

자소서에 쓴 활동, 짜임새 있게 말할 수 있어야

자기소개서 작성과 함께 면접은 수험생에게 큰 부담입니다. 그러면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원자가 서류평가에서 보여준 역량이 실제 있는지, 그 외에 어떤 잠재력을 지녔는지 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면접을 실시합니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기록이 과장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며 서류평가를 통해 확인했던 지원자의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등을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수시 면접의 체계적 준비

1 인성·서류확인·제시문 기반 면접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은 크게 인성면접, 심층면접, 서류확인면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인성면접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모든 면접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면접으로 수험생의 가치관, 기본 소양, 지원동기 등을 확인하는 면접입니다. 그러므로 인성면접은 별도의 준비 없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는 다른 면접과 함께 진행됩니다.

② 서류확인면접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해당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기록이 과장되지 않았는지를 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지원자의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등을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시〕 동국대학교 〔Do Dream〕

〔북한학과〕 통일 프레젠테이션 대회에서 공동 수상했는데, 같이 참여했던 3명 중 본인이 맡았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보세요. 〈검증: 수상경력〉

〔통계학과〕 3학년 '화법과 작문' 시간에 '문명과 수학'이라는 책 을 읽고 '세상을 움직이는 수학'이라는 제목으로 독서비평문을 작성했는데, 작성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검증: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

〔물리·반도체과학부〕 2학년 때 발명아이디어 대회에서 수상했는데 자기소개서를 보면 '원심력 아령'을 출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또 어떤 원리를 이용하여 제작했나요? 〈검증: 학생부 수상경력, 자기소개서 2번〉

〔예시〕 중앙대학교 〔다빈치전형〕

〔광고홍보학과〕 자기소개서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고 하였는데 공감을 이끄는 광고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부분에서 공감을 이끈다고 생각하나요?

〔화학신소재공학부〕 3년간의 화학실험반 동아리 활동에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매우 잘 다뤘다고 하는데, 그 개념을 활용하여 어떤 실험들을 하였는지 설명해 주세요.



인성면접서 나오는 질문은
학생부·자소서 내용 '재확인'
동아리·독서활동 성실히 답을
제시문 기반 면접 위해선
정확한 독해·사고력 갖추고
모의면접 통해 표현력 키워야

2 개별·집단 면접

① 개별면접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대학이 실시하는 것으로, 주로 면접위원 2~3명이 지원자 1명과 질의응답하는 면접 방식입니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수의 면접위원(전임입학사정관 및 위촉입학사정관)이 수험생 1명을 10분 내외 면접하는 방식인 것이 특징입니다. 개별 면접은 대부분 인성 면접과 서류 확인 면접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② 집단면접은 집단면접과 집단토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단면접은 경인교대에서 실시하는 면접 방식이고, 집단토론은 고려대 학교장추천 I 과 공주교대 등 일부 교대에서 실시하는 면접 방식입니다. 보통 5~6명 내외의 수험생들이 30여 분간 토론하게 됩니다. 이 면접을 통해 협동심,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예시〕 2019학년도 수시 교직적성잠재능력우수자전형 집단면접 문제(A형)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90% 이상이 일상대화에서 욕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친구로부터 처음 욕설을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교사들이 이러한 실태를 체감하면서 생활지도를 해보려 하지만 효과는 미온적이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과도한 욕설이나 비속어가 포함된 동영상 또는 개인방송에 쉽게 노출되면서, 초등학생들은 욕설이나 비속어의 뜻도 잘 모르는 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등 욕설 사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동영상 또는 인터넷상에서의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에 대한 제재의 목소리가 높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법적 규제도 쉽지 않다.

〔문제〕 초등학생들의 욕설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세 가지 제시하시오. 그리고 욕설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세 가지 제안해 보시오.

〔예시〕 고려대학교 2019학년도 학교추천 I 토론면접 제시문(오전)

안암고등학교는 올해의 안암 봉사상 수상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지난 1년간의 봉사활동 횟수와 시간만을 고려할 때, 1단계 심사를 통과한 다섯 명의 봉사활동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	봉사 내용	횟수/기간	시간
A	○○병원 환우를 위한 연주	30회	60시간
B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30회	60시간
C	△△요양원 식사 수발, 정서 지원, 말벗	20회	50시간
D	외국인 대상 문화재 해설 및 통역	15회	60시간
E	장애학생 도우미	2학기	40시간

(1) 1단계를 통과한 다섯 명의 후보자(A~E) 중 수상 후보를 두 명으로 압축하고, 그 과정에서 고려한 기준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2) 1번 문항에서 고려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보충하기 위해 어떤 정보가 추가로 필요할지 설명하십시오.

3 효과적인 면접 준비 방법

수시 면접 준비를 위해서는 먼저 지원대학의 면접 유형과 면접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서를 통해서 면접 유형과 방식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이전 학년도의 면접 문제를 공개하고 출제 의도를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서와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기출문제는 물론 면접 방식까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인성면접의 문제들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성실하게 동아리, 진로 전공 탐색, 독서활동 등을 하면서, 이를 자기소개서에 정직하게 기록한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부의 중요 활동 내용들을 정리하고,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자료에 대한 정확한 독해와 해석 능력,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과 함께 적절한 표현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인성면접과는 달리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모의 면접을 반복하면서 면접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김경환 소장
입시연구소 행복한3월

학종은 '적자생존'… 기록하는 습관 들여라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김경진 소장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확 바뀌는 2022 대입 … 고1이 '지금' 해야할 것들

현재 고 1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은 대입 전형 구조 개편에 따라 정시 비중 30% 확대, 수능 과목 구조 및 출제 범위 변화, 학생부 항목 간소화 등 대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예고된 상태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일찌감치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예고사항을 발표한 대학도 있다. 서울대가 가장 대표적이다. 서울대는 2022학년도부터 정시 일반전형 선발 비율을 30.3%로 확대하고, 정시 모집군 역시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할 것을 밝힌 상태다. 또 정시에서 교과 이수 가산점을 반영하는 등 새로이 추가된 사항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사진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서울대의 이러한 대입 개편은 타 대학–특히 상위권 대학들의 2022학년도 전형계획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크고 작은 변화들이 예고되는 2022학년도 대입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금' 해야 할 일들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생활에 충실함과 동시에 꾸준히 진로 및 적성을 탐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 첫 학기의 내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은 학생들 중 대부분은 대입에 대한 불안감을 지닌다. 특히 3~5등급대 중하위권 학생들은 애매한 내신 성적으로 인해 수시로는 상위권 대학 진학이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벌써부터 정시에만 매진해야 할지 여부를 고민한다. 처음부터 1~2등급대 성적을 받아야만 수시로 목표 대학 진학이 가능할 거란 섣부른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현 대입 체제에서 수시와 정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더욱이 앞으로 보내야 할 학기가 더 많이 남아 있는 고1 입장에서 일찍부터 수시와 정시 어느 한쪽에만 매진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대입 전략 수립이라 할 수 없다.

내신, 즉 교과 성적은 비교과 활동, 수능 성적과 더불어 대입 전략을 세움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중 하나다.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은 물론이요,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실기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것이 교과 성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대학은 정시에서 교과 성적을 반영하기도 한다. 요컨대 벌써부터 내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총 9번의 대입 지원 기회에서 수시 6회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 나아가 정시에서도 일정 부분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의미에서 지금 당장 고1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곧 다가올 2학기 중간고사 및 수행평가를 대비하는 것이다. 내신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시험의 출제자와 평가자가 학교 선생님이란 사실이다. 이는 선생님들과 친해야 한다거나 선생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업 그 자체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신 시험에서는 수업 내용이 곧 시험 범위이며, 그 안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수행평가가 평가의 중심축을 이룬다. 이를 외면하고는 우수한 교과 성적을 얻기란 쉽지 않다. 학원 강의나 시중 문제집만으로 내신을 대비하는 것이 실제 내신 성적 향상으로 직결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

교내활동·진로탐색·학업…
세밀하게 남길수록 유리해
필기·메모 중요성 더 부각

첫시험 망쳤다고 좌절 금물
2학기 중간고사·수행평가 등
만회할 기회 충분히 있어

수업에 충실하면서 이를 좋은 내신 성적으로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적극 실천해야 할 것은 꾸준한 메모 또는 필기다.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인'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주어진 정보를 자유자재로 해석해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를 내재화해 자신의 언어로 바꾸는 능력,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 모두가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메모와 필기다. 수업을 들으며 열심히 필기한 뒤 틈틈이 수업에서 핵심과 그렇지 않은 것, 추후 더 학습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리는 연습을 병행한다면 자연스럽게 나만의 시각에서 학습의 균형을 잡는 게 가능해진다. 이러한 역량은 비단 내신뿐 아니라 수능 대비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시간 활용 및 학습에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현 고2 학생들부터 적용됐지만, 수능 체제나 입시 제도의 연속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적용은 고1 학생들부터 해당된다. 이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 선택과목의 석차 등급, 표준편차 미표기는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진로 선택과목 선택에 있어 경쟁 결과에 의한 석차 등급 표기를 원천봉쇄함으로써 선택의 자율권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선택에 있어 결과보다는 과정을 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 중심주의'는 단순히 진로 선택과목 선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도 결과보다는 과정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며,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취지를 지닌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역시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에서 진행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1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과정의 핵심, 즉 '과정'을 늘 염두에 두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기록이다. 교내 활동과 진로 탐색, 학업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자. 예를 들어 교내에서 진행하는 특정 활동에 참여했다면, 활동 내용을 기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하게 된 계기와 참가 목적, 활동이 끝난 뒤 상황과 이로 인해 느끼고 깨달은 점 등 일련의 '과정'을 세밀히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과정이 담긴 '기록하는 습관'은 자연스럽게 활동과 활동 간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낸다. 어느 활동에 대해 계기와 과정, 결과, 느낀 점 등을 기록하면 스스로 다음 활동에 대한 실마리를 얻거나 자신의 관심 분야, 목표 등을 더욱 선명히 모색하게 되기 때문이다.

진로와 적성에 대한 조직적이고 일관성 있게 구성된 학교생활기록부는 이처럼 학생 스스로 과정을 기록해 나가는 습관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지금 당장은 다소 귀찮고 불필요한 행위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기록의 습관은 머지않아 본격적인 대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자녀의 꿈 존중하는 세상서 가장 나쁜 부모는?



〈게티이미지뱅크〉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꿈을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전 세대 부모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회계사 등 흔히 이야기하는 좋은 직업을 강요했기 때문이라 추측해 본다. 자녀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현 세대 부모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저는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으면 해요." 얼핏 들으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인 것 같다.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존중해주니 말이다. 그런데 좋은 부모로서 마음은 알겠으나, 정작 행동은 따라 주지 않는 것 같다.

자녀 교육에 대한 마음가짐에 상응하는 교육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꿈, 미래, 희망 직업 등 진로에 대한 설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결정이다. "어른도 진로를 결정하기 어렵다. 학생들에게 진로를 설정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을 비판하곤 한다. 그러면서 막상 그 어려운 진로 결정을 전적으로 자녀에게 맡긴다.

자녀의 꿈을 존중하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부모가 되는 이유를 알아보자. 자녀가 꿈이 아직 없는데 꿈을 찾는 것에 대한 지원이 없다. 어떤 직업이 있는지 견문을 넓혀야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도 해볼 수 있을 텐데 견문을 넓힐 수가 없다. 학교를 다녀오면 학원을 가고, 학원을 다녀오면 이미 자야 할 시간이다. TV나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사치다. 부모들에게 TV나 인터넷은 자녀 학습에 방해가 되는 방해물일 뿐, 간접경험을 할 수 있는 채널임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TV는 옛날의 '바보상자'가 아니며, 컴퓨터는 인터넷·게임중독을 유발하는 '중독성 기계'가 아니다. 자녀가 더 많은 직업과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간접체험의 장이다. TV쇼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SNS를 하면서 진로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중인 것이다.

아이들 꿈 아직 없는데
진로탐색 지원 안해주고
학습에 방해된단 이유로
'간접체험의 장' TV등 막아
진로에 대한 견문 기회 차단
교육부 '커리어넷' 들어가
자녀와 함께 탐색해볼만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부모 직업을 동경한다. 제일 먼저 알게 되는 직업이고 함께 사는 부모가 하는 일이기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 자녀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고, 의사 자녀는 의사가 되고 싶어한다. 그러다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희망 진로에 추가된다. TV를 보기 시작하면 꿈은 더 다양해진다. 연예인, 가수, 연기자 등 직업이 추가되고, 최근 프로그램들이 요리에 대해 많이 다루니 셰프가 희망 직업으로 급부상했다. 유튜브가 인기를 끌면서 유튜버는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다. 이것만 보아도 자녀들이 간접경험을 통해 진로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가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탐색적 수단을 지원해야 하는데, 견문을 넓히고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쌓을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인 TV나 인터넷을 못하도록 통제하니 언행불일치의 극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자고로 처음으로 무엇을 하면 배우고 공부를 해야 하거늘,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부모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결정을 내리고 가치관을 세워 교육하니 제대로 된 진로 교육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부모가 자라던 시대에는 환경이 더 안 좋았다며,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난 자녀가 꿈도 없고 노력도 안 한다며 오히려 아이들을 나무라는 현실이다. 아이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진로는 결정해야 하는데 부모는 꿈을 찾으라고만 하지, 학교에서 선생님은 가르치는 것에 급급하지, 상담을 하고 싶어도 진로진학센터에서는 대입지도나 하고 있을 뿐 진짜 진로교육은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아이들은 막막할 뿐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일정 시간을 진로를 찾는 데 시간을 쓰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제도 목적과는 다르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보충학습 시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제도는 좋으나 이를 받아들이는 부모들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 아직까지도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학과에 입학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직장에서 더 이상 명문대학, 좋은 학과가 아닌, 실력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학 진학에만 열중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녀 꿈을 존중하는 부모라면 아이들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자. 교육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커리어넷(www.career.go.kr)을 활용하면 자녀 진로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직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녀가 있다면, 커리어넷의 진로심리검사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린다. 청소년용으로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진로성숙도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른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적성검사로 본인 성향이나 관심사를 알았다면, 다음 단계로 적성과 관련된 학습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찾아보아야 한다. 직업과 연관된 학과 정보는 커리어넷에서 찾아볼 수 있고,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에 대한 정보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적성과 관련된 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이 무엇인지, 대학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각 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이처럼 진로와 관련된 정보는 많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부모 도움이 필요하다. 그저 자녀의 꿈을 존중한다면 명목 아래 방치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진로탐색을 해나가야 자녀의 꿈을 존중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재우 기초역량개발연구원 원장

잃어버린 사춘기의 행복, 나 자신을 꽉 안아주길



김슬기 기자의
Must Read


〈게티이미지뱅크〉

나를 좋아하지 않는 나에게



크리스티나 드 위타 지음
김인경 옮김
리듬문고 펴냄

사춘기는 정말 괴롭다. 친구, 반 배정, 외모, 아르바이트, 성적….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저기서 털이 자라기 시작한다. 엉덩이랑 가슴은 왜 쓸데없이 커지는 걸까?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크로스틴이 탄생했다. 세상에서 가장 귀엽고 엉뚱한 생명체인 크로스틴이 10대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힘든 고민들에 꽤 괜찮은 답을 들려줄 것이다. 이 안내서에는 10대들을 위한 재미있고 진심 어린 인생 꿀팁이 가득하다. 사춘기라는 괴로운 시기를 지나가는 모든 소녀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나에게'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춘기를 이야기한다. 이 책은 소녀들의 마음에서 시작해 몸에 대한 긍정, 관계 맺기, 자존감 회복하기, 사회에 뿌리박힌 차별에 맞서는 방법까지 사춘기 때 좌충우돌하고 고민하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다룬다. 그러나 절대 가르치지 않고 주입하지 않고 어떻게 살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지극히 평범한 사춘기를 보냈던 저자가 현실 속에서 마주했던 친구 문제, 짝사랑, 외모, 성적, 가족 관계, 왕따 문제를 솔직하고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작가만의 따뜻하고도 명쾌한 답과 실천 가이드를 선물한다. 저자가 사춘기 소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절하는 연습을 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조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괴롭힘과 차별에 맞서고, 너 자신을 조금 더 좋아해봐."

이 책의 저자인 크리스티나 드 위타는 벨기에에 살고 있는 20대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글 작가이다. 사춘기 즈음,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 헤매다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친구와 가족들에게 "유치하다"는 혹평을 받았다. 크리스티나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꿈을 좇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크로스틴이라는 캐릭터가 탄생했다. 엉뚱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 크로스틴과 함께 사춘기 소녀들에게 인생 꿀팁을 전수하는 일을 시작했고, 이 일은 한 권의 책이 되었다. 사춘기는 수렁에 빠진 시간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답답한 시간도 아니다. 저자는 우리가 잠깐 잃어버린 사춘기의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 그 행복을 찾는 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나에게 좀 더 친절하고, 나의 장점을 마음껏 드러내고,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사춘기는 조금 더 행복해질 예정이다. 이 책은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자기 자신의 특별함을 묻어두고 사는 10대들에게 자기 자신을 좀 더 유쾌하게 바라보고 꽉 안아주며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여행지에서 얻은 깨달음…'나에게 쓰는 편지'로 되새겨



임윤희 장학사의
교육현장 이야기

여행을 가면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공간과 시간을 기억한다. 보통 사진을 찍고, 더 나아가 그 지역을 담은 자석이나 열쇠고리를 사기도 한다. 여행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지폐나 동전을 모으기도 하고, 엽서를 사기도 한다.

나는 여행지 대표적인 명소를 담은 엽서를 사서 메시지를 써서 부쳤다. 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 다짐한 점 등을 나에게 적어서 주로 근무하던 학교로 보냈다. 편지를 썼다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로 여행을 마치고 나서 학교에 돌아오면 며칠 후 내게 편지가 도착한다. '임윤희 선생님, 임윤희 씨에게 편지가 왔어요'라며 편지를 건네주는 분이 신기해하기도 했다.

뒤늦게 도착한 엽서를 읽으며 한 학기를 어떻게 보낼지 다시 다짐하기도 하고, 금방 잊힌 여행의 추억을 되새기기도 하였다. 여행에서 얻은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가다듬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오랜만에 여행 관련 물건을 정리하며 내게 쓴 편지들을 살펴보았다. 2000년 여름 유럽여행 중 유럽에서 가장 높은 우체국이 있는 스위스 몽블랑에서 서른이 된 나에게 이런저런 다짐을 하며 보낸 엽서, 2002년 히말라야 트레킹을 앞두고 네팔 포카라 호숫가 민박집에서 결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닐뿐더러 막상 결혼을 해도 싱글일 때가 그리워질 거라며 이런저런 위로의 말을 적은 엽서, 2004년 진안 마이산 여행을 하고, 돌탑을 쌓은 사람의 정성을 기억하며 무엇이든 정성을 다해 임하자고 결심하며 썼던 엽서 등등이 눈에 띄었다. 그후 내게 쓰는 편지는 중단됐지만 그래도 꽤 치열하게 살았던 30대의 나를 발견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다들 무엇인가를 결심했을 것 같다. 1학기 동안 열심히 몰입했던 무언가에서 결실을 맺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이다.

‘프듀’ X1 데뷔…가시밭길 넘어 무한 잠재력 펼칠까



〈사진 제공=스윙엔터테인먼트〉

프로듀스 101 네번째 그룹 X1
첫 미니앨범 ‘비상’으로 데뷔
아이튠즈 K팝 차트 19國 1위
발매 당일 27만장 판매 기록

프듀X 투표조작 수사가 변수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 커져

“팬 위해 당당한 엑스원 될것”
고척돔 데뷔 쇼콘서 다짐

신인 보이그룹 엑스원(X1)이 정식 데뷔하며 ‘비상’을 시작했다.

엑스원은 지난 7월 종영한 Mnet ‘프로듀스 X 101’ 최종 11위에 포함된 김요한(위엔터), 한승우(플랜에이), 조승연(위에화), 김우석(티오피미디어), 이한결(엠비케이), 차준호(울림), 손동표(디에스피미디어), 강민희(스타쉽), 이은상(브랜뉴뮤직), 송형준(스타쉽), 남도현(엠비케이)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이다.

‘프로듀스 101’ 시리즈를 통해 탄생한 아이오아이, 워너원, 아이즈원에 이어 네 번째로 탄생하는 그룹이자 역대급 프로젝트 그룹으로 기록된 워너원에 이은 두 번째 보이그룹으로, 데뷔 전부터 프로그램의 인기로 ‘꽃길’을 예고한 바 있다.

팀명 엑스원은 ‘미지수(X)의 연습생들이 모여 하나가 된다’는 의미. 프로그램 해당 시즌이 주목한 ‘X’를 바탕으로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낼 멤버들의 잠재력을 뜻하기도 한다.

◆팬덤 효과? 데뷔 앨범 ‘비상’ 온·오프라인 반응 뜨거워

지난달 27일 최근 발표한 첫 번째 미니앨범 ‘비상 : QUANTUM LEAP(비상 : 퀀텀 리프)’는 11명의 멤버들이 하나가 되어 날아오르겠다는 희망을 담은 ‘비상’ 버전과 대도약을 꿈꾸는 엑스원의 의지를 담은 ‘QUANTUM LEAP(퀀텀 리프)’ 버전으로 구성됐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플래시(FLASH)’를 비롯해 인트로곡 ‘스탠드 업(Stand Up)’ ‘웃을 때 제일 예뻐’ ‘괜찮아요’ ‘유 갓 잇(U GOT IT)’ ‘움직여(MOVE) (Prod. By ZICO)’ ‘__지마(X 1-MA)’까지 총 일곱 트랙이 수록됐다.

엑스원은 앨범 발매 당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엑스원 프리미어 쇼콘(X1 Premier Show-Con)’을 열고 1만 8000명의 팬들 앞에서 데뷔 신고식을 짜릿하게 치렀다. 이들은 데뷔조를 꾸린 지 불과 한 달여 안에 해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 높은 무대로 가능성을 입증했다. 신인답지 않은 무대 기량과 놀라운 개그감, 남다른 팀워크도 돋보였다.

타이틀곡 ‘플래시(FLASH)’는 순항을 일찌감치 시작했다. ‘플래시’는 하우스와 퓨처트랩이 접목된 EDM 장르의 곡으로, 비상을 꿈꾸는 X1의 탄생과 포부를 알리며 각 멤버의 개성과 다채로운 음색을 담았다. 이 곡은 발매 이튿날 국내 다수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 실시간 1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국내 차트뿐 아니라 글로벌 음원 플랫폼 아이튠스가 발표한 전 세계 K-POP 차트에서도 엑스원의 첫 번째 미니 앨범은 19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데뷔에 앞서 빌보드 메인차트 중 하나인 아티스트 100 차트, 소셜 50 차트, 이머징 아티스트 차트에도 잇달아 이름을 올린 이들은 앨범 발매 1시간 전 ‘X1-Debut’이라는 해시태그로 트위터 전 세계 실시간 트렌드 1위에 노출되며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냈다.

한터차트에서도 엑스원 인기는 확인됐다. 발매 하루 만에 26만8008장의 판매량을 기록한 엑스원의 ‘비상 : 퀸덤 리프’는 8월 한 달간 집계된 음반 판매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표한 8월 월간차트에서 44만7259장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해 단 5일간의 판매량으로 1위에 오르며 막강한 팬덤 화력을 입증했다.

◆꽃길 앞에 놓인 가시밭길…‘프듀X’ 조작 논란에 암초도 여전

오프라인 및 음원차트 반응은 뜨겁지만 온라인상 반응은 여전히 분분하다. ‘프로듀스 X 101’ 투표 조작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엑스원을 향한 여론의 온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상황.

‘프로듀스 X 101’은 최종회 생방송에서 공개된 투표 데이터상 득표수 차가 일정 수(7494.442)의 배수로 반복되는 점으로 인해 투표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제작진을 고소, 고발하고 CJ ENM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검경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엑스원의 데뷔 강행 자체를 두고 갑론을박도 이어져왔다.

이에 대해 엑스원은 데뷔 쇼콘에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에 대한) 부담보다는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앨범을 열심히 준비한 이유는 오직 팬들을 위해서다. 이번 앨범을 통해 그런 점을 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데뷔 쇼콘 말미에는 팬들 앞에서 “당당한 엑스원이 되겠다”는 다짐도 남겼다.

하지만 엑스원 활동은 이전 시즌으로 탄생한 선배 그룹인 워너원, 아이즈원과 달리 험난할 전망이다. 친정인 Mnet ‘엠카운트다운’을 통해 방송 데뷔 무대를 마치긴 했으나 ‘프듀 X’ 논란 여파로 KBS2 ‘뮤직뱅크’를 비롯한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데뷔 무대는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다. 이미지상 문제로 인해 광고계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엑스원의 공식 활동 기간은 5년. 5년 여정의 첫발을 험난하게 내디딘 엑스원이 논란을 이겨내고 진정한 대도약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박세연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기자

글쓰기 실력 닦아 정확한 정보 알리고

틴매일경제
제17기 학생기자



▶윤수혁/금촌고 2

틴매경 학생 기자로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기사가 아닌 봐야 할 기사를 쓰겠습니다. 더불어 기사를 쓸 때 가벼운 마음으로 작성하지 않고,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편견으로만 가득한 기사가 아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해서 기사를 쓰겠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봐야 할 기사,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기사를 적겠습니다.

▶오지민/대전신일여고 2

17기 틴매경 학생기자로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과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미래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한국의 경제, 사회문화에 대한 기사를 학생들이 보기 쉽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자 활동을 하면서 저의 글쓰기 실력을 늘려 더욱 좋은 구성과 내용의 기사를 쓰겠습니다.

▶이윤경/고양국제고 1

오로지 경제 한 분야보다는 경제와 얽혀 있는 다양한 국제 관계, 법, 광고, 언론 등의 분야를 취재해서 기사로 작성하고 싶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만이 아닌,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경제 없이 설명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기사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특히 인간의 합리적 판단에 기초하는 학문인 경제학이,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경제학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다양한 사례, 그리고 광고와 같은 매개체를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기고하고 싶습니다.

▶문무진/울산중앙고 1

트럼프 정부의 계속되는 보호무역주의, 영국의 브렉시트, 한일 무역분쟁 등으로 복잡해지는 국제관계와 4차 산업혁명으로 도래할 새로운 시대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심해 보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각각의 사회현상에는 그것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견해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모든 시각과 견해를 기사에 담아내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절충하고 중립성을 유지해 독자들의 다각적인 사고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윤다인/경민비즈니스고 1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사를 쓰는 '틴매경 학생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2019년 현재 10대, 20대, 30대 연령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이 아직까지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읽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부유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와 반대로 삶이 녹록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후자처럼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기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양은정/인천여상 2

나도 한때 그랬듯이 경제에 문외한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고 접근하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학생기자 활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고찰해 경제에 문외한 사람들이 경제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보다 쉽고 유익한 기사를 작성할 것입니다. 또한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의 분야에서 나의 가치관과 견해가 담겨 있는 기사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이나영/경주여자고 2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기술이 구축되며 지구는 정보 세계주의로 변모됐고, 우리는 비로소 육체에게 구애받지 않고 '마음만은 가까워진' 삶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신설된 핫라인을 통해 범국가적 타협과 조율을 주고받으며 국제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대리인으로 세계 무대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김혜정/대전신일여고 2

저는 '처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처음 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좋은 성과를 얻고자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틴매경 기자 활동을 하는 만큼 청소년들이 경제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재밌고 유익한 기사를 작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기자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조건희/광주광남고 1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을 읽으며 각 회사의 중요 사업계획이나 각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그 정책을 기반으로 나의 꿈인 '사회적 기업 경영인'에 걸맞게 어떻게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과 궁금증 그리고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탐구정신을 가지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사를 쓸 것이며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성실히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습니다.

▶김민주/신한고 2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는 로마제국의 제16대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만물은 변화다. 우리의 삶이란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지 생각으로만 그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17기 틴매경 기자부터 시작해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의견을 펼쳐 제 자신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세대에 꿈과 희망 메시지 전할래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필동 매경미디어그룹 본사에서 틴매일경제신문 학생기자를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틴매경 학생기자들은 신문의 이해와 글쓰기 방법 등 틴매경학생기자가 되기 위한 기초 교육을 받았다. 또한 매경미디어그룹의 윤전실에 들러 신문인쇄와 신문사가 운영되는 체계를 배우고 MBN 뉴스센터를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훈 기자〉

틴매일경제 제17기 학생기자

▶정영서/광주광남중 2

17기 학생기자로 처음 기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신문을 처음 접했을 때의 어려움을 느껴 보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경제에 거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학생의 시선으로 기사를 쓰겠습니다. 또 사회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바라보며 사람들이 제 기사를 읽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송민영/광주광남중 3

먼저 제가 제17기 틴매일경제 학생기자단으로 선발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16기에 이어 17기 활동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글을 쓰는 게 제 취미이자 자랑거리이기에 누구보다 학생기자단인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해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수료증도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

▶양유나/성남외고 2

틴매일경제 학생기자로의 본분을 다하고, 기사 소재의 참신성과 정확 및 사실성,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글을 쓰고 싶습니다. 같은 청소년으로서 다른 청소년들이 틴매경 기사를 쉽게 접하고 이해하기 수월하도록 글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특히 기사를 쓸 때 다양한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지루하지 않은 기사를 작성해나가고 싶습니다.

▶이진황/광주광남중 2

지난 제16기 기자단 활동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흥미로운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를 쓰겠습니다.

▶고두윤/광주광남중 2

이번 제17기에 처음으로 틴매경 기자단에서 활동하게 됐는데, 이 처음이라는 것이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실수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자단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이상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겠습니다. 많이 읽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하기에 기대가 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정직하고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윤하은/순천강남여고 1

내가 요즘 바라는 것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을 이기는 것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꾸준함이란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값진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목숨처럼. 나는 내가 틴매경 기자로 활동하는 동안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현우/광주광남중 3

제17기 틴매경 기자단이 된 만큼 저와 같은 청소년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기사를 쓰고 틴매경 기자단 활동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습니다.

▶강수민/광주광남중 2

헬렌 켈러가 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혹은 타인의 삶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처럼 제16기 기자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나의 단점을 보안하며 기사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사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기사를 쓸 것입니다. 제17기 기자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오유찬/서현고 1

진실 또한 알리지 않으면 무수한 추측 중 하나로 보일 뿐입니다. 모두에게 진실을 알려서 자신이 진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내 기사를 보는 시간을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한 자 한 자 공들여 작성할 것입니다.

공인번호 : 기획재정부 제2018-180호
등록번호 : 2012-0277호

매일경제
MAEIL BUSINESS NEWSPAPER

2019 시험일정
9/21, 11/16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
틴매경 TEST



꿈꾸던 내가 된다

자격명 :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틴매경TEST) | 자격의 종류 : 국가공인민간자격(A+,A,B) / 등록민간자격(C,D)
응시료 : 2만원 | 환불규정 : 정기접수 마감일까지 환불 신청시 응시료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제외),정기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불가
발급기관 : 매일경제신문사 | 대표자 : 장대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매경미디어센터)
연락처 : 02-2000-2469 | 홈페이지 : http://mktest.org | 이메일 : mktest@mk.co.kr